

路加福音傳

누 가 복 음 전
路 加 福 音 傳

Ro. kia. pok. euni. tchyen.

l'evangile Selon St. Luc.

en coreen.

1 vol. gr. in-12. 60 f.

Miss. Méthodiste américaine?

Seoul. 1890.



EX LIBRIS COLLIN DE PLANCY.

COR. 1-531

开江成日天福区署

大同書院

성상직조이십칠년경이



누가복음데일장

대개여러사람이붓술들어우리가온터일운바일을쓰기는 처음으로브터천이보고도률전하는쟈가우리를줌굿치^(三)내가도호처음으로모든일을조세히상고하야초례로써쏘듯하고귀호티오비노의합하의즐거앙달홈은^(四)령의빈혼바의굿게홈을알게홈이라○^(五)유터왕혜롯의때를당하야아비아의반렬에제스일홈은샤카랴요그쳐는아론의후예일홈은이리사벳이니^(六)두사람이하느님의암회서울흔쟈 I라쥬의경계와례의를다좆차횡^(七)기루그릇홈이업스터^(八)다못아들이업슴은이리사벳이잉티치못하고두사람의나히도늙음이라^(九)못총사카랴그반렬을의지하야제스의직분을하느님의암회횡^(十)더니^(十一)제스의규례를좇차그제비로쥬의던에드러가^(十二)분향^(十三)매분향^(十四)하는때에뭇빅성은밧괴셔빌더라^(十五)쥬의스자I더의개낫타나향단

우편에 셋 거울사 카랴 보고 ⁺³ 놀내고 무서워 흠니 ⁺³ 스자 1 글으 터사
카랴는 무서워 말나너의 비는 거술들으 셋느니너의 쳐이리사 벳이아
돌을 나으리니 일홈을 요안느라 ⁺⁴ 허라 ⁺⁴ 네 즐거워 흠며 깃거 흥고 여라
사름이 그남을 즐겨 훌거 시 ⁺⁵ 쥬의 암희셔 더가콤이 되여 청쥬와 독쥬
를 마시지 안코 턱로 브터 성신이 ⁺⁶ 죄매 ⁺⁶ 이 살일사름으로 마니쥬그하
느님의 게도 라가게 흥고 ⁺⁷ 또 쥬를 압셔 힝 흥야 이리아의 성정과 능간
으로 써아 밤의 모임으로 그아들의 게도 라와 거스러 진쟈로 올흔쟈의
지혜에도 라가게 흥야 쥬를 위 흥야 새로 지은 빅성을 예비제 흥리라 ⁺⁸
니 ⁺⁸ 사카랴 1련스肆글으 터내 엇지 그려 흄을 알니 오내가 늙은사름
이요 내의 쳐나히 또 흔들었느이다 ⁺⁹ 1련스 1터 담 흥여 글으 터나는 갑
별이니 하느님 암희뫼 신는 자로 불님을 빛들어 네게 말 흥야 아름다온
괴별을 보 흥노니 ⁺¹⁰ 네가 잠잠 흥여 말 흥지 못 흥고 일이 일원날에니 룸

은내의말을밋지아님이때나르려응험호리라^二 빅성이사카랴를기
드려그성던안에셔오림을괴괴히넉이더라^三 멋나오매능히말호지
못호거늘성던안에셔본바^一 잇슴을알믄형용으로써보이고못총내
벙어리되더라^二 마즈막과만이^三 집에도라가니○^{二四} 후에그쳐이리
사벳이잉티호야스스로숨긴제다솟돌만에말호되^{二五} 쥬가째로나를
도라보시며나를티접을이곳치호야붓그러옴을인간에씻는다^{二六} 더
라^{二六} 여속돌만에런스갑념이하느님의부림을밧들어가니내의나살
잇고을에가쳐녀^{二七} 마리암의게림호니다빛의일가요셉의빙문호밧
쟈^一 라^{二八} 턴스^一 드러가골으뒤큰운혜를받은쟈눈편안호라쥬^一 너
를훔끼호고네가여러녀인중에복이잇다^{호니}^{二九} 마리암이그말을놀
내여엇더호문안인가성각호니^三 턴스^一 골으뒤마리암은무서워말
나네가하느님의은총을엇어^三 장초잉티호여아들을나으리니예수

라 일 흥 호 라 ^{三二} 더 콤이 되여 지극히 능흔이의 아들이라 칭호거시쥬하
느 님 이 그 조상 다빛의 위로 써 주어 ^{三三} 기리야 꼴의 집에 왕이 되여 그 나
라 이 다홍이 업스리라 ^{三四} 흐니 마리암이 굽으 터내가 출가치 못 흐 옛스
니 엇지이 를 흐리 오 ^{三五} 텐스 — 뒤답 흐여 굽으 터성신이 네게 강림 흐여
지극히 능흔이의 능함으로 장초너를 덙흐리니 고로 나는 바성자로 써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호 라 ^{三六} 또 너의 친척이 리사벳이 늙게 아들을
비였스니 본령으 헤비지 못 흐 던쟈가 이제 여 솟들이니 ^{三七} 하느님의 말
슴은 능치아님이 업느니라 ^{三八} 마리암이 굽으 터쥬의 시비여 괴잇스니
공의 말고기를 원호노라 ^{三九} 니이에 텐스 — 가더라 ○ ^{三九} 그 때에 마리암
이 속하니 러나 산디방에 가 유티 훈고을에 니르러 ^{四十} 사가랴의 집에 드
러가 이리사벳의 계문안 ^{四十} 흐니 못 촘에 이리사벳이 마리암의 문안을
드른 매트이 뛰닐고 뜨이리사벳이 성신이 닉넉흔자라 ^{四一} 크게 불너 굽

으 터 모 든 너 인 중에 네 가 복 이 요 너 의 빈 바 도 노 혼 복 이로 다 쥬 의 어
마 님 이 내 개 림 흐 니 이 엇 더 혼 일 이 뉴 문 안 소 리 내 귀에 들 니 매 터 가
깃 거 뛰 노니 ○ 四五 멋 는 너 인 이 복 이라 흄 은 쥬 의 말 슴 흐 신 바 를 응 흄 이라
흐 더 라 ○ 四六 마 리 암 이 골 으 터 내 므 워 이 쥬 를 놈 하 고 四七 내 령 혼 이 나 를
구 원 흐 는 하 는 님 을 것 거 흐 더 니 四八 더 시 비 의 미 약 흄 을 도 라 보 앗 스 니
일 노 후 에 는 만 셰 에 나 를 복 이 잇 다 날 을 거 시 四九 능 혼 이 가 나 를 위 흐 여
대 스 를 일 위 엿 스 니 성 혼 그 일 흄 이 여 五〇 두 려 워 흐 는 쟈 를 어 엿 비 넉 여
더 더 에 너 를 거 시 五一 그 폴 노 힘 을 베 프 러 므 워 에 교 만 혼 쟈 는 헤 치 고 五二
권 쟈 잇 는 쟈 는 그 위에 내 치 고 는 존 쟈 는 거 션 흐 고 五三 주 린 쟈 는 도 혼 음
식 으 로 비 부 르 게 흐 고 부 쟈 로 공 연 이 도 라 가 게 흐 야 五四 그 종 이 살 일 을
붓 들 른 五五 압 라 함 과 그 저 손 을 길 리 어 엿 비 넉 이 심 이 니 우 리 조 상 과 말
흐 심 쟁 다 흐 고 ○ 五六 마 리 암 이 석 들 을 흄 씨 흐 다 가 도 라 가 니 라 五七 이 리

사 벳 의 으 히 나 을 괴 약 이 쟈 매 아 돌 을 나 으 니 ^{五八} 린 리 와 친 척 이 쥬 | 크
케 어 옛 비 네 임 을 듯 고 다 즐 거워 헌 고 ^{五九} 팔 일 만 에 와 서 아 돌 에 게 할 레
를 헝 헝 고 그 아 밤 의 일 흠 사 카 래 로 써 일 흠 코 져 헌 니 ^{六〇} 그 어 맘 이 글 으
되 을 치 안 타 요 안 니 라 일 흠 헌 니 ^{六一} 뭇 사 름 이 글 으 터 친 척 중 에 이 일 흠
잇 는 자 업 다 헌 고 ^{六二} 이에 그 아 밤 의 께 형 용 헌 야 무 어 스로 일 흠 흠 고 헌
니 ^{六三} 아 밤 이 분 판 을 청 헌 야 써 글 으 터 그 일 흠 을 요 안 니 라 헌 니 뭇 사 름
이 괴 괴 허 넉 이 고 ^{六四} 즉 시 입 이 낸 니 고 혀 가 푸 러 져 말 헌 여 하 는 님 을 찬
미 헌 니 ^{六五} 인 리 다 무 셔 워 이 일 이 다 온 유 터 의 산 디 경 에 해 여 져 ^{六六} 듯 는
쟈 | 다 모 옴 에 간 직 헌 고 닐 으 터 그 러 면 이 으 히 장 초 엇 지 헌 리 오 헌 니
쥬 의 손 으로 붓 들 엇 다 헌 더 라 ○ ^{六七} 그 아 밤 사 카 래 성령 에 감 동 헌 여 미
리 말 헌 터 ^{六八} 찬 미 흠 지 라 쥬 이 살 일 의 하 는 님 이 여 흠 은 그 빅 성 을 도 라
보 아 속 헌 게 헌 고 ^{六九} 우 리 를 구 원 헌 는 불 을 그 종 다 벳 의 집 에 계 우 니 ^{七〇}

4
쥬 | 지 벽 써 옴 으로 그 성 훈 선지 의 계 부 닥 흐여 말 훈 바 굳 혼 거 시 흐 우
리 둘 원 슈 와 우 리 둘 위 위 흐는 자 의 손에 구원 흐고 흐 우리 조 상 을 어 옛
비 넉 여 그 성 훈 언 약 을 괴 록 흐 옛 소니 흐 곳 우리 조 상 압 라 함 으로 더 브
러 밍 셔 혼 바 | 라 흐 우리 둘 원 슈 의 손에 건 져 흐 일 성 을 쥬 의 압 희 셔 성
훔 파 의 로 써 무 셔 움 이 업 시 셈 길 지 니 흐 이 으 희 를 지 국 히 놓 혼 이 의 선
지 라 칭 혼 거 시 쥬 를 암 셔 흐 흐여 그 길 을 예 비 흐 기 를 흐 죄 샤 흐는 구원
으 로 써 그 빅 성 을 알 게 흔은 흐 하 는 님 이 어 엽 비 넉 이 는 모 음 으로 써 아
총 날 을 우 으로 브 터 우 리 계 텁 흐여 흐 어 두 온 터 와 죽 은 그 늘 에 거 혼 자
의 계 빗 치 우 고 우 리 발 을 편 안 혼 길 에 인 도 흔 이 라 흐 더 라 ○ 흐 흐
라 매 정 신 이 건 장 흐 며 들 에 잇 서 이 살 일 낫 타 나 는 날 을 기 드 리 더 라
누 가 복 음 데 이 장

못 촘 그 땐에 지 살 아 구 스 토 가 던 하 사 름 의 계 죠 셔 흐 여 호 져 을 올 널 쇠

크례뇨는 수리아방벽이 되였을때에 이호적이처음으로 힝호매

三

뭇사람이 가서 호적을 올니고 각각 그고을노도라갈서

四

요셉은다빗

의족보—라고로가니느의나살잇으로 브티유티에나아가다빗의고

을에니르니일홍은벳니염이라

五

빙문흔마리암잉티흔바로더브러

호적을흘식

六

못첨거고서나을거약이초매

七

맛아돌을탄성하니뵈

로써싸고물구유에뉘임은직념에옹남흘곳이업슴이라

八

그디방

에목인이잇서밧희셔밤에양의무리를직회더니

九

쥬의스쟈—결회

셔니쥬의영광이두루빛최거.늘목인이크게무서워하니

十

스쟈—글

으티무서워말나내너의게큰갓분복음을보호노니이는뭇벽성을위

흘자—라—오늘다빛의교을에너희를위하여구원하는쥬끼리스도

쓰룰탄성호옛느니—어린으히를뵈예싸물구유에뉘임을보리니이

거시괴호라—는더—문득여러런군이잇서스쟈와함께하느님을총

양 흐여닐 으 터¹⁴ 우에 눈하느 님의 계영 화흐고 아래는 그깃불을 님은
사름이 평안 흐리라하고 ○¹⁵ 못 촘스자 | 떠나하늘노을나가니 목인
이 서로 골으 터우리 벳니염에 가쥬우리께보여 일위운일을 보자하고
¹⁶
급히 가서 마리암과 요셉과 문구유에 어린으 희뉘임을 보고 즉시
던스 말호바이 어린으 하일노고 흐니¹⁷ 듯는자 | 다목인의 말을 괴괴
히녀이 되¹⁸ 마리암은 이 말노 써모움에 간슈흐여 성각흐더라¹⁹ 목인
이 본바와 드룬바가 다던스의 말흐홍으로 써하느 님을 영화흐여 송양
흐고도 라오더라 ○²⁰ 팔일만에 으 희를위 흐여 할례를 힝하고 예수라
일홍흐니 곳으 희비기전에 런스 | 청호바늘너라 ○²¹ 모쇼의례를의
지 흐여정결흐는날이초매어린으 희를안고 예루살임에 올나가쥬의
게드리고 ○²² 쥬의례에 쓴바굿치므로 첫번으로 난아들을쥬의 계성호
물건이라 ○²³ 칭하고 아울나훈상비들기와 후두개식기비들기로 써제

를 드려 주의 레 ^고 치 ^하 더 라 ^(三五) 예 루 살 일에 일 흠을 시 몬 이라 ^하 는 자 있
 스니 그 사 름 이 올 코 ^도 정 성 ^하 여 이 살 일의 위로 를 ^스 모 ^하 는 자로 성령
 이 감동 ^하 는 자라 ^(三六) 성령의 무시를 엊어 죽기 전에 주의 키리스도 쓰를
 보리라 ^하 더니 ^(三七) 성령의 계감동 ^하 여 성령의 드러가니 못 촘 예수의 부
 모 ^하 어린 ^으 히 를 안고 드러와 레를 쪽 차 향코 져 ^하 거 ^(三八) 늘 ^시 몬 이 ^으 히
 를 안고 하느님을 찬미 ^하 여 굴 ^으 터 ^(三九) 주야 이제 주의 말 혼 바 ^고 치종을
 노아 ^하 안연이 가게 ^하 는 거 시 ^(四十) 내 눈이 주 만민의 ^(三一) 암 희갓 초온 바 구원
 을 보니 ^(三二) 빛 치 외방에 빛 최여 이 살 일 주의 빅성의 영화됨이라 ^하 니 ^(三三)
 그 부모 ^하 예 수 를 말 흠을 괴 괴 히 넉이 거늘 ^(三四) 시 몬이 축 슈 ^하 고 마리 암
 쪽 굴 ^으 터 이 ^으 히 셔 셔 이 살 일에 만히 성쇠를 위 ^하 며 쌈을 밧는 괴 호 가
 되고 ^(三五) 칼 노 네 ^모 움을 질 너 ^제 여 만 혼 ^모 움의 성각으로 ^하 여 곰 나 타나
 게 ^하 리라 ^하 더 라 ^(三六) 안나 ^하 라 ^하 는 부인이 잇 ^스 니 아설의 지피에 바 누

열의 뜰이니 선지요 나히 늙은지라 쳐녀로 출가¹ 훈제 철년 만에 ^{三七} 파부
 되여나히 여든너 힌티성던을 쪘나지 안코 저계² 히며 금식³ 힍고 벌기로
 밤낮상데⁴ 를 섬기더니 ^{三八} 당시에 암희나아와 하느님⁵ 씨 감사⁶ 힍고 뜨예
 루살임에 구원⁷ 브라던사⁸ 름의⁹ 채이¹⁰ 히를 말¹¹ 터라 ^{三九} 예수의 부모¹²
 주의례¹³ 를 쪽차일을 못치고 가니¹⁴ 니의나 살잇¹⁵ 넷마을 노도라가니 ○¹⁶
 으히 점점자르며 건장¹⁷ 힍고 저해¹⁸ 가넉넉¹⁹ 히니 하느님의은총이 그 우에
 잇더라 ○^{四一} 미년²⁰ 넘는 절에 그부모²¹ 예루살임에 나아가더니 ^{四二} 예수
 열두살 되엿슬때에 절괴의 규례²² 를 쪽차 예루살임에 올나가 ^{四三} 괴약을
 못치고 도라오는터 예수는 오히려 예루살임에 잇는지라 그부모는 아
 지못²³ 히고 ^{四四} 동횡중에 잇는가 쫓²⁴ 히고 흐로 길을 가셔 친척과 친고²⁵ 소이
 에²⁶ 헤자 맛나지 못²⁷ 히고 ^{四五} 예루살임에 도라 가²⁸ 헤더니 ^{四六} 사흘 후에 성던
 에서 맛나니 선성가온터 안자드²⁹ 를 머도 무르니 ^{四七} 듯는자 — 그총명과

되 담 흠을 괴 괴 히 네 이 거 늘 四八 부 모 — 보 고 이 상 히 네 여 그 어 마 니 四九 골 으
되 으 히 야 엇 지 이 콧 흠을 우 리 게 힝 흠 는 나 너 의 아 밤 이 나 로 더 브 러 속
이 상 흠 여 너 를 죠 잣 다 五〇 흠 四九 골 으 샤 터 엇 지 나 를 죠 조 며 내 가 맛 당 히
아 바 님 소 에 잇 슴 을 아 지 못 흠 五〇 흠 五〇 부 모 는 그 말 을 셔 닷 지
못 흠 고 五一 더 브 러 나 살 잇 에 도 라 가 부 모 를 순 종 흠 五二 그 어 마 니 이 말 노
써 모 도 五三 모 음 에 간 슈 흠 五二 더 라 ○ 예 수 지 혜 와 키 가 자 른 여 하 는 님 파 사
롭 이 은 총 을 더 흠 五三 더 라

누가복음 데 삼 장

기 살 기 비 류 — 위에 잇 손 제 섭 오 년에 본 휴 피 나 토 는 유 터 방 빙 이 되 고
혜 롯 손 가 니 니 분 봉 혼 인 군 이 되 고 그 동 성 비 니 포 는 이 투 린 와 틀 코 니
티 도 땅 분 봉 혼 인 군 이 되 고 누 산 유 는 아 비 리 니 분 봉 혼 인 군 이 되 고 五
아 나 와 카 아 바 — 제 스 장 되 옛 슬 때에 하 는 님 의 명 이 들에 사 카 랴 의 아

돌요안 님의 계 닐으니 ^三 데 올 단스 방에 와셔 회기의 밥데례 ^四 를 전하 여
씨 죄를 샤케 ^四 하니 ^四 션지이 샤야의 글에 쓴 바로 치들에 부르는 자의 소
리 글으 터 주의 길을 예비 ^五 하며 그 터 좁은 길을 곳게 ^五 하라 ^五 모둔 골을 메
우고 산과 둔던을 다 늦초고 굽은 거술 곳게 ^五 하며 험흔 터 가평 ^五 디 되게 ^五
여 ^六 므로 혈괴 있는 자는 하느 님의 구원을 보리라 ^六 하더니 ^七 나아와 밥
해례를 밟으 랴 ^七 하는 자의 계요 안 님 글으 터 독샤의 조식 아뉘가 너희를
권 ^八 허여 장리의로 를 피 ^八 하라 ^九 더니 ^八 회기에 합당 훈열미를 빛쳐 스스
로 암라 함을 우리 조상이라 ^九 하지 말나 흠은 내너희께 말 ^九 하느니 하느 님
이 능히 이 돌을 너리 쪽 암라 함의 조식이 되게 ^九 흠이라 ^九 이제 독괴가 나
무뿌리에 림 ^十 하였스니 ^十 므로 남기 션호 열민 가 및 치지 안는 자는 찍어 불
에 더지리라 ^{十一} 하니 ^{十一} 뭇사람이 무러 글으 터 우리 엊지 ^{十一} 하리요 ^{十一} 하니 ^{十一} 터
답 ^{十二} 하여 글으 터 웃두벌이 잇스면 난호어 웃업는 자를 주고 밥도 쏘 ^{十二} 혼 그

러케 하여라 ^고 ₊ 세판이니 르러도 혼밥례를 뱗으랴 ^하며 굽으 ^되
선성님우리 엇지 ^하리요 ^하니 ₊ 굽으 ^되명훈부세외에는 츄치 말나 ^하
^고 ₊₊ 군수 | ^도 훈무 러글 ^으 ^되우리 엇지 ^하리요 ^하니 ^군 ^으 ^되사 ⁺ 룸의 ^게
토석지 말며 거 ^즈고 치 말며 엉은 바 ^랑식으로 써족 ^하다 ^하라 _더라 ○
^복 성이 기 ^드렸다가 ^모 움에요 ^안 ^느를 ^후 ^카리스도 쓴 가 ^의론 ^하니 ₊
요 ^안 ^느 ^못사 ⁺ 룸의 ^게 ^되답 ^하여 ^글 ^으 ^되나는 물노 ^써 ^너희를 ^밥례 ^례주되
오직 ^나 ^를이 ^괴는 ^쟈 | ^오리니 그 ^신들메를 풀나 ^하여 ^도내 ^도 혼감당치
못 ^흘거 ^시 ^더는 성령파불노 ^써 ^너희를 ^밥례 ^례주고 ^그 손에 치를 ^잡고
그마당을 정히 ^싸 불너밀은 창에 드리고 ^거는 ^새지 ^지 ^안는 불노 ^써 ^스로
리라 ^하고 ○ ⁺ ^도 여러 말노 ^써 ^권 ^하여 복음을 ^복성의 ^게 ^전 ^하더니 ₊ 분
봉군해 ^로 시동성의 쳐해로다의 일파 ^밋 ^횡 ^훈 ^바 ^악으로 써다 ^칙 ^망을 ^요
안 ^느의 ^게 ^보 ^고 ○ ⁺ 그 일을 더 ^하여 ^요 ^안 ^느 ^를 ^옥에 가 ^두 ^나 ^라 ○ ⁺ ^못 ^총 ^못

빅성이 밥데례 밧을 적에 예수 | 또 호밥데례를 밟고 빌때에 하늘이 열
 달고 三 성령이 그 우에 릴 흐니 형상이 비들 기우고 하늘노브터 소리잇
 서골으 터너는 내의 소랑 흐는 아들이요 내의 깃거흐는 바 | 라 흐더라
 ○ 三 예수 | 비로소 그 치는 터나 히삼십이니 사람 이 써요 셉의 아들
 이라 흐더라요 셉아밤은 헤니요 二四 그 우은 맛 탓이요 그 아밤은 니위요
 그 아밤은 밀 키요 그 아밤은 얀 니요 그 아밤은 요 셉이요 二五 그 아밤은 맛
 태디요 그 아밤은 아못이요 그 아밤은 나움이요 그 아밤은 예 쓸이요 그
 아밤은 낙기요 二六 그 아밤은 마앗시요 그 아밤은 맛 태디요 그 아밤은 쇠
 미인이요 그 아밤은 요 셉이요 그 아밤은 유 터요 二七 그 아밤은 요 아는이
 요 그 아밤은 레사요 그 아밤은 쇼로 바빌이요 그 아밤은 사나털이요 그
 아밤은 네리요 二八 그 아밤은 밀 키요 그 아밤은 앗 디요 그 아밤은 코 삼이
 요 그 아밤은 일 모 담이요 그 아밤은 열이요 二九 그 아밤은 요 수요 그 아밤

은이네 살이요 그 아밤은 요림이요 그 아밤은 맛닷이요 그 아밤은 이위
요^{三七} 그 아밤은 수돈이요 그 아밤은 유다요 그 아밤은 요셉이요 그 아밤
은요^{三八} 남이요 그 아밤은 열야김이요^{三九} 그 아밤은 밀야요 그 아밤은 밀나
요^{四十} 그 아밤은 맛타타요 그 아밤은 나단이요^{四一} 그 아밤은 다벳이요^{四二} 그 아
밤은 옛서요^{四三} 그 아밤은 오벳이요^{四四} 그 아밤은 보웃시요^{四五} 그 아밤은 살몬이
요^{四六} 그 아밤은 낫앗손이요^{四七} 그 아밤은 아미나답이요^{四八} 그 아밤은 알늬요
그 아밤은 의사론이요^{四九} 그 아밤은 바릿시요^{五十} 그 아밤은 유다요^{五一} 그 아밤
은 야곱이요^{五二} 그 아밤은 이삭이요^{五三} 그 아밤은 압라함이요^{五四} 그 아밤은 디라
요^{五五} 그 아밤은 나코리요^{五六} 그 아밤은 사룬이요^{五七} 그 아밤은 라가우요^{五八} 그 아
밤은 발익이요^{五九} 그 아밤은 이빌이요^{六十} 그 아밤은 사나요^{六一} 그 아밤은 지는
이요^{六二} 그 아밤은 아발삿시요^{六三} 그 아밤은 셈이요^{六四} 그 아밤은 노아요^{六五} 그 아밤
은나믹이요^{六六} 그 아밤은 미두샤나요^{六七} 그 아밤은 이눅이요^{六八} 그 아밤은 야

렛시요 그 아밤은 마나열이요 그 아밤은 지는이요 三八 그 아밤은 익놋시
요 그 아밤은 셋시요 그 아밤은 아담이요 그 아밤은 하느님이니라

누가복음예스장

예수 | 성령이 감동하니 울단지울노브리도라 가니 = 성령이 인도하
여들에서 스십일에 시험을 마귀에게 보와 그때에 먹지 못하고 고약이 자
빅곱하하니 三 마귀글 으 터네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돌노써역이
되게 하라하니 四 예수 | 터답하샤터글에 널너스되사롬의 살미썩만
아니라하니 五 마귀드리고 올나가 슬식간에 련하각국으로 써보게 하
여 六 굴으티내이모든권세와 영화로 써너를 줄거시니이 거순내께 붓
천거시라내가 하고 저하는 바를 주리니 七 네 만약 내게 절하면 다네 것
시라하니 八 예수 | 터답하여글 으 샤터글에 널 으 터쥬너의 하느님썩
절하여 홀노섬기겟다하니 九 도 쇠을고 예루살임에 니르러 뎐당에 세

우고골으 터네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 면여괴뛰여느리라 + 글에 널너
스 되그스쟈를 명호여너를 보호호여 + 손으로 써붓들어 발이돌에
질님을면호리라호니 + 예수 + 터답호여골으샤터글에잇스니쥬너
의하느님을시험치말나호매 ○ + 마귀가시험hom을다하고잠잔떠나
니라 ○ + 예수 + 성령의능간으로가니니로도라가니그성령이스방
애폐지더라 + 회당에서 그르치니뭇사람이영화호더라 ○ + 자르난
곳나살잇에가사밧일에규례를좇자회당에드러가셔서넓으려호매
션지이사야의글노씨주거눌칙을폐그염홀보니셋시되 + 쥬의성
령이내게잇슴은나를기름발나복음을간난호쟈의게전호며나를보
내여사로잡힌쟈를노이기롭고호며쇼경을붉게호며상호쟈을노와
가게호여 + 써쥬의깃분히를전호라호옛거눌 + 이에칙을접어집스
를주고안즈니회당못사람이눈을들어보는지라 + 예수 + 비로소골

으샤더이글이오늘너희귀에응흐옛다호니^{二三}뭇사름이간증하고그
입으로은총의말나옴을괴괴히넉여골^{二四}터이요셉의아들이아니냐
하니^{二五}예수丨글으샤더너희실노속담을인흐여내게말흐라의원이
스스로곳치라우리가빌남에셔힝Hon바를드르니또호본토에셔힝흐
라^{二四}내실노너의게말흐노니션지가본토에셔깃거터접호자丨업느
니라^{二五}오작내실노너희게말흐뇨니이리야떼에하늘이삼년반을닷
겨온싸이크제괴황흐여이살일에파부만흐되^{二六}이리야丨부림을밧
들어호사름의게감이업고오직시돈의사름다흔파부의게만나아가
고^{二七}선지이리서때에이살일에빅남풍이만으되호나도정홈이업소
되오직수리아의사름닉만이라호니^{二八}회당뭇사름이듯고심히로호
여^{二九}니러성밧색쫓차선을고성지은산방애에밀치고져흐되^{二十}다못
예수丨뭇사름가온터로지나가더라○^{二一}가니뉘의호고울가빌남에

니 르 러 사 뱃 일 에 그 르 치 니 三二 뭇 사 름 이 그 르 침 을 경 동 험 은 그 말 이
권 세 잇 슴 일 너 라 三三 회 당 에 혼 사 름 이 더 러 온 귀 신 에 브 튼 바 — 된 지 라
크 케 불 너 三四 골 으 터 슬 푸 다 나 살 잇 의 예 수 는 우 리 너 희로 더 브 러 엇 더
흐 기 로 네 와 셔 우 리 를 망 흐 누 냐 내 너 를 뉀 줄 아 는 거 시 하 는 님 의 성 조
— 라 흐 니 三五 예 수 척 망 흐 여 골 으 샤 터 입 닷 고 나오 라 흐 매 샤 귀 뭇 사 름
가 온 터 업 터 여 치 고 나오 되 그 사 름 이 상 흄 이 업 스 니 三六 뭇 사 름 이 이 상
히 녁 여 서로 말 흐 여 골 으 터 이 엇 더 혼 말 이 기로 권 세 와 능 흄 으로 써 샤
귀 계 명 흐 여 곳 나 온 다 흐 고 三七 이 에 명 성 이 소 방 에 나 더 라 ○ 三八 예 수 —
회 당에 나 와 시 몬 의 집에 드 러 가 니 시 몬 의 장 모 열 병 이 심 히 중 흐 여 사
름 이 위 흐 여 예 수 땠 구 흐 니 三九 암 희 셔 셔 열 병 을 칙 망 흐 매 열 병 이 물 니
가 고 부 인 이 곳 니 러 나 일 을 공 급 흐 더 라 ○ 四十 희 질 때에 모 든 사 름 이 있
는 바 여 러 가 지 병 흐 는 자 를 드 리 고 니 르 거 늘 예 수 흐 나 식 손 을 안 찰 흐

여곳치니 ^四 귀신이 여려사람으로 나와 불너갈 ^五 터너는 하느님의 아
 둘이라 ^六 허니예수 ^一 척망 ^七 여말치 말나홍은 더가즈괴를 키리스도 쓰
 됨을 알미라 ○ ^{四二} 봉기에 예수들에나아가매뭇사람이 ^八 자나아와 ^九
 나지말고 져 ^十 여머 ^{一一} 므되 ^{四三} 다못예수 ^{一二} 굴으샤 ^{一三} 터내맛당히하는님의나
 라복음을 ^{一四} 죠호다른고을에 전 ^{一五} 홍거시내가 불음을 ^{一六} 밧들을 미이 ^{一七} 를위 ^{一八} 흠이
 라하고 ○ ^{一九} 이에 도를 가니 ^{二〇} 니 모든 회당에 전 ^{二一} 허더라

누가복음데오장

못 춤못사람이 옹위 ^{二二} 허여하느님의 도를 듯는 터 예수 ^一 긴니사 ^{二三} 릿희변
 에서서서 ^{二四} 두비희변에 잇슴을 보니고 기낙는사람이 ^{二五} 죄나그물을 씻는
 터 ^{二六} 비훈척은 시몬의 ^{二七} 비라 예수 ^一 을나명 ^{二八} 허여비옴 ^{二九} 겨뭇희조 ^{三十} 꼼 ^{三一} 죄나
 비가온터 ^{三二} 안저못사람을 ^{三三} 그르치더니 ^{三四} 말을다 ^{三五} 허고 시몬의 ^{三六} 게말 ^{三七} 슴 ^{三八}
 여걸으샤 ^{三九} 터비를 ^{四十} 옴겨 ^{四一} 김흔터 ^{四二} 니 ^{四三} 러그 ^{四四} 물쳐 ^{四五} 낙그 ^{四六} 라 ^{四七} 허니 ^{四八} 시몬이 ^{四九} 터

답 허여 글 으 터 부 듯 । 우리 종 약 를 슈고 허고 엇은 바 । 업스 니다 못부
조의 말 노 써 그 물 치리라 허고 六 즉시 그 물을 치니 고 기 걸 낸 거 시심히
만하 그 물이 거의 써여 질나 허거 늘 七 다룬 비에 동모 룰 불녀 와셔도 으
라 허매 오니 고 기를 두 뷔에 八 쳐서 거의 잠길나 허거 늘 九 시몬 피들이 보
교 예수의 발아래 업되어 글 으 터 쥬나 를 떠나 쇼셔나는 죄인이라 허고
* 시몬과 멋 흠 띄 허는 사람이다 이 상히 낙임은 고기 잡은 거 시만 흠이
라 + 시몬의 동모 시비 터의 아돌야 곱파요 안늬 뜨 훈그 러 허니 예수 ।
시몬의 게 글 으 샤 터 무서워 말나이 제 브리 네 사람을 엊으리라 허니 十一
더들이 비를 쇠으러 뭇 회다하고 모든 물건을 봉리고 예수를 둑더라 ○
+ 몇 촘 훈고을에서 전신에 빅 남풍 허는자 । 예수를 보고 업터여 구 허
여 글 으 터 쥬가 만약 즐기시면 능히 나를 간정케 허시리이다 허니 十三 예
수 । 손을 펴 문져 글 으 샤 터 내 즐겨 허니 너는 간정 허라 허매 빅 남풍이

즉 시났는지라 ^{十四}예수니 경계 ^{十五}하되사름의 ^{十六}개고 치말고다 ^{十七}못가셔 ^{十八}제스
의 ^{十九}개보이고 모 ^{二十}죠의 명호 ^{二十一}바 ^{二十二}조치례 물을 드리고 네 ^{二十三}간정 ^{二十四}홈으로 써 ^{二十五}못사
룸의 ^{二十六}간증을 삼으라 ^{二十七}하니 ^{二十八}그 조문이 더 ^{二十九}욱 펴져 ^{三十}못사름이 모여드르 ^{三十一}랴
^{三十二}하며 병을 ^{三十三}곳치랴 ^{三十四}하니 ^{三十五}예수니 물너들에 가서 빌더라 ○ ^{三十六}못 ^{三十七}훔 ^{三十八}그 때
에 ^{三十九}하로는 ^{四十}그 ^{四十一}칠적에 ^{四十二}바리식인 ^{四十三}파법 ^{四十四}그 ^{四十五}칠자는 ^{四十六}쟈가 ^{四十七}나 ^{四十八}느 ^{四十九}모든 ^{五十}마을 ^{五十一}파
유 ^{五十二}더의 ^{五十三}예루살임으로 ^{五十四}브 ^{五十五}터와 ^{五十六}안 ^{五十七}젖는 ^{五十八}지라 ^{五十九}쥬의 ^{六十}능 ^{六十一}홈이 ^{六十二}훔 ^{六十三}색 ^{六十四}하여 ^{六十五}써 ^{六十六}병
을 ^{六十七}곳치니 ^{六十八}못 ^{六十九}촘 ^{七十}사름이 ^{七十一}상으로 ^{七十二}써 ^{七十三}바 ^{七十四}룸 ^{七十五}증 ^{七十六}하 ^{七十七}는 ^{七十八}쟈를 ^{七十九}메고 ^{八十}드 ^{八十一}러가 ^{八十二}예수
의 ^{八十三}압 ^{八十四}회 ^{八十五}두고 ^{八十六}져 ^{八十七}하되 ^{八十八}사름이 ^{八十九}만 ^{九〇}하시 ^{九一}러 ^{九二}곰 ^{九三}갓 ^{九四}가 ^{九五}이 ^{九六}못 ^{九七}흐고 ^{九八}이 ^{九九}에 ^{一〇〇}집 ^{一〇一}옹에
온 ^{一〇二}나 ^{一〇三}가 ^{一〇四}기 ^{一〇五}와 ^{一〇六}골 ^{一〇七}노 ^{一〇八}말 ^{一〇九}미 ^{一〇一〇}암 ^{一〇一一}아 ^{一〇一二}상으로 ^{一〇一二}써 ^{一〇一三}드 ^{一〇一四}리 ^{一〇一五}워 ^{一〇一六}예 ^{一〇一七}수 ^{一〇一八}의 ^{一〇一九}압 ^{一〇二〇}회 ^{一〇二一}당 ^{一〇二二}하니 ^{一〇二三}밋
음을 보고 ^{一〇二四}걸 ^{一〇二五}으 ^{一〇二六}샤 ^{一〇二七}티 ^{一〇二八}뇨 ^{一〇二九}야 ^{一〇三〇}네 ^{一〇三一}죄 ^{一〇三二}샤 ^{一〇三三}하 ^{一〇三四}엿다 ^{一〇三五}하니 ^{一〇三六}전 ^{一〇三七}비 ^{一〇三八}와 ^{一〇三九}바 ^{一〇四〇}리 ^{一〇四一}식 ^{一〇四二}인 ^{一〇四三}이
의 ^{一〇四四}론 ^{一〇四五}흐 ^{一〇四六}여 ^{一〇四七}길 ^{一〇四八}으 ^{一〇四九}티 ^{一〇五〇}이 ^{一〇五一}촘 ^{一〇五二}남 ^{一〇五三}훈 ^{一〇五四}말 ^{一〇五五}흐 ^{一〇五六}는 ^{一〇五七}쟈 ^{一〇五八}가 ^{一〇五九}뉘 ^{一〇六〇}냐 ^{一〇六一}하 ^{一〇六二}느 ^{一〇六三}님 ^{一〇六四}외 ^{一〇六五}에 ^{一〇六六}뉘 ^{一〇六七}능 ^{一〇六八}히 ^{一〇六九}죄 ^{一〇七〇}률
샤 ^{一〇七一}흐 ^{一〇七二}리 ^{一〇七三}요 ^{一〇七四}하 ^{一〇七五}니 ^{一〇七六}예 ^{一〇七七}수 ^{一〇七八}— ^{一〇七九}그 ^{一〇八〇}의 ^{一〇八一}론 ^{一〇八二}홈 ^{一〇八三}을 ^{一〇八四}알 ^{一〇八五}고 ^{一〇八六}되 ^{一〇八七}답 ^{一〇八八}하 ^{一〇八九}여 ^{一〇九〇}길 ^{一〇九一}으 ^{一〇九二}샤 ^{一〇九三}티 ^{一〇九四}녀 ^{一〇九五}희 ^{一〇九六}었

지 모 음에 의 론 호 는 나 ^(二三) 말 호 여 죄 샤 호 는 것 과 니 러 힝 호 는 거 시 어 는
거 시 쉽 겠 는 냐 ^(二四) 다 못 너희로 호 여 곰 인 듯 이 세 상에 죄 샤 호 는 권 셰
잇 숨을 알 게 호 리라 호 고 이에 브 름 중 호 는 자 의 게 말 호 여 굴 으 샤 터 내
명 호 노 니 네 니 러 나 상을 가지 고 집에 도 라 가라 호 니 ^(二五) 그 사 름 이 즉 시
니 러 나 뭇 사 름 암 희 셔 두 엇 던 거 슬 가지 고 집에 도 라 가며 하 는 님 을 영
화 호 고 ^(二六) 뭇 사 름 이 또 혼 혼 나 하 는 님 을 영 화 호 고 또 놀 내 여 굴 으 터 오
놀 의 외 지 스 를 보 웠 다 호 더 라 ○ ^(二七) 그 후에 예 수 이 나 아 가 세 판 리 위 라
호 는 자 이 세 소에 안 즘 을 보고 굴 으 샤 터 나 를 솟 치 라 호 니 ^(二八) 이에 일 절
을 브 리고 니 러 쫓 더 라 ^(二九) 리 위 예 수 를 위 호 여 대 연 을 집에 빙 설 호 고 허
다 혼 세 판과 다른 사 름 이 참 예 호 옛 스 니 ^(三〇) 바 리 서 인 파 선 비 데 스 씨 시
비 호 여 굴 으 터 엉 지 세 판과 죄인 으로 더 브 러 음식 호 는 냐 호 매 ^(三一) 예 수
나 터 답 호 여 굴 으 샤 터 건 장 호 자는 의 원 을 쓰지 안 코 오 직 병 호 는 자 야

쓰느니^{三二} 내가 옴은을 혼사름을 부름이 아니요 죄인을 불너 회자^{回자} 켜^{ホーム}
이라^하더라^트 뮤사룸이 굽으^티 요안^언의 데^조는 조조 저^제하^여 빌고^고
바리^식데^조도^도 혼그러^하는 터^오직^언네^의 데^조는 음식^{흔다}하^니^트 예^예
수^수—^걸으^샤터^신랑^이 잇^슴이^었지^지 능히^경하^하는 사^사름^{으로} 하^여 꼬^꼬
계^계하^하랴^트 오^직훗^날신^랑이^드려^간후^에 야^이에^지 계^계하^느니^라하고^고
^{三六}비^비스^를뭇^사룸^의게^말하^하터^새무^영으로^로 헌^온깁^는사^사름^이업^슴은^새
거^거시^씨여^져기^운바^새거^거시^헌거^거시^합지^못홀^{가져}어^어홈^이요^트 새^술노^노
헌^피되^에넷^는사^룸이^업슴^은술^이 그^피되^를터^쳐술^이 새^고피^되도^도 혼^혼
망^망하게^될가^져어^어홈^이니^트 오^직새^술을^새피^되에^넷느^느니^라묵^온술^을
마^마시^고^트새^술싱^각하^는쟈[—]업^슴온^묵온^거시^요타^닐옴^이라^라

누가^복음^메륙^장

못^총사^밧일^에예^수—¹곡^식밧^희지^내더^니데^조—¹이^삭을^쓰비^비여^먹

으니 = 바리석인이 혹 굴으 터사 밧일에 힝호기가 합당치 못 훌바를 엇
지 힝호는 나 = 예수 1 터답호여 굴으 샤티너 회다빗과 및 죽는 자 비급
흘때에 힝호바를 외오지 못호는 나 = 하느님의 덴에 엊더 케드러 가진
설흔썩을 취호여 먹고 또 죽는 자를 주었스니 이썩은 제스외에 눈맞당
히 먹지 못 훌거시라호고 또 죽길으 샤티인조 1 사밧일의 쥬인이 라호
더라 = 못 촘호사밧일에 예수 1 회당에 드러그르 치시는 터훈을 혼편
손마른쟈 1 잇스니 = 선비와 바리석인이 사밧일에 곳치는 가엿보와
틈을 엊어 죄주고 져호나 = 예수 1 그 뜻술알고 손마른쟈의 죄명호여
글으샤티너러 가온티셔라호매이에니러셔니 = 예수 1 못사룸의 죄
글으샤티내너희께문느니사밧일에 션을 힝호며 악을 힝둠파성명을
구원호며 성명을 망호는 것서어느거시합당호겟느냐호고 + 이에 늦
사룸을 둘너보고 그사룸의 채굴으 샤티손을 펴라호매 펴치니 곳늦거

는 ⁺¹ 뭇사람이 심히로 허여 흠뻑 엊지뻐 예수를 쳐치 훔고 의론 헌더라
○ ⁺² 그 때에 뭇 촘 예수 | 산에 가 빌매 밤이 뭇도록 하느님의 계빌고 ⁺³
붉기에 데즈들을 불니 열두 사람을 턱 허여 몸데즈 | 라 칭호 니 ⁺⁴ 시몬
피들이라 칭호는 자와 그 동성안드랴와 야곱과 요안느와 비립파발도
로 미와 ⁺⁵ 맛티와 도마와 알비의 아들야곱과 예라 칭호는 시몬파 ⁺⁶ 야
곱의 동성유다와 이 쓰카료유다 | 니 곳스승을 풀자 | 늘니라 ⁺⁷ 예수 |
몸데즈와 흠씨산에 는 려평 ⁺⁸ 에서니 허다 훈데즈와 뭇사람이 유티스
방파예루살임파투로와 시돈의 히번으로 브터와 드르며 병을 곳치고
⁺⁹ 죽흔더러온 귀신의 억제 훈바된자 | 다나음을 엊으니 ⁺¹⁰ 예수 | 능
홈을 낫타내여 써사람을 곳치는고로 뭇사람이 문짐을 엊고 져 허더라
○ ⁺¹¹ 예수 | 눈을 들어 데즈를 보고 골으샤더니 희가 난흔자 | 복임은
하느님 나라 이 너희게 브팀이요 ⁺¹² 너희주린자 | 복임은 너희장조부

부를거시요 너희우는쟈 । 복임은너희장초우슬거시요 三 네희인자
를위해여사람이너희를위해며멀니호며욕호며너희일홍을악호
개념여스려홈이 三 너희복임은당일에즐거워뛰닐거시하늘에서너
희상증이를지니그조상이선지되접호기률도호이곳치호였느니라
 三 오직너희부흔쟈 । 저화는임의안위를엇음이요 三 너희비부흔쟈
 । 저화는장초주릴거시요 너희웃는쟈 । 저화는장초의동홀거시요
 三 뜻사람이칭예호이네저화는그조상이선지되접호기률도호이곳
 치호였느니라 ○ 三 다못내너희듯는자의게말호노너희를되역호
 눈자둘스랑호며뭐워호는쟈를선더호며 三 악언호는쟈를축슈호며
 너를업수이넉이논쟈를위호여빌며 三 너희쌈을치면다른쌈서지또
 호주며네방것웃슬썩앗거든속웃서지금치말며 三 너의게구호는쟈
 를주며너희물건가진쟈를다시달나호지말며 三 사롭으로너희게향

코져오는 거슬너희 뜨호이곳치사름의 깨행호 라 ^{三二} 너희를 사랑하는
쟈를 사랑하면 무슴은 총이잇스리요 죄인이 뜨호제사랑하는쟈를 사랑
하는니라 ^{三三} 너희를 선텰호는쟈를 선텰호면 무슴은 총이잇스리요
죄인이 뜨호이곳호니라 ^{三四} 사룸의 깨빌니고 갑기률의 수이호는니라 ^{三五} 다못
이잇스리요 죄인이 죄인의 깨빌니고 갑기률의 수이호는니라 ^{三五} 다못
너희를 터역호는쟈를 사랑하며 선텰호고 빌니고 브라지아난죽너의
상중이크고 베지극히 드흔이의 아들이 될거시며의 혜갈임이운혜를
닛고 선치아닌사룸의 깨밋씀이니 ^{三六} 너희어엿비넉이기률너희하늘
의 아바니굿치호여라 ^{三七} 사룸을 평론치아닌죽너희를 평론치아니호
코사룸을 죄주지아니호죽너희를 죄주지아니호고사룸을 평론치아니호
호죽너희를 접어성각호고 ^{三八} 사룸을 준죽너희를 주고 큰말로 써누루
고흔들어 밟고 넘치게너희품에 주리니너희가 무슴말노씨준죽도호

그 말 노 써 너 희 를 주 리 라 흐 고 ○ 三九 또 비 스로 말 슴 흐 샤티 쇼 경 이 쇼 경
을 인 도 흐 면 서로 웅 덩 이 애 짜 지 지 아 니 랴 四十 데 조 가 션 성 을 넘 지 못 흐
되 오 직 덕 이 가 존 자 는 션 성 파 고 흐 니 라 四一 동 성 의 눈에 가 시 잇 슴 을 너
희 보 고 조 칙 눈에 봇 장 잇 슴 을 성 각 지 못 흐 니 엇 지 나 도로 혀 동 성 째 글
으 터 네 눈에 가 시 를 나 를 용 납 흐 여 브 리 게 흐 라 흐 고 四二 조 칙 눈에 봇 장
을 보 지 못 흠 은 엇 지 냐 거 죽 션 을 흐 눈 자 야 몬 저 네 눈에 봇 장 을 브 리 고
복 히 보 이 거 든 동 성 의 눈에 가 시 를 브 리 라 四三 션 혼 나 무에 악 혼 열 미 및
치 지 안 코 악 혼 나 무에 션 혼 열 미 및 치 지 안 는 니 四四 므 르 나 무 를 그 열 미
로 써 아 는 니 라 형 족 가 온 터 무 화 파 를 쓰 지 못 흐 고 진 려 가 온 터 포 도 를
키 지 못 흐 는 니 四五 션 혼 사 를 은 므 움에 션 을 싸 앗 기로 그 션 을 낫 타 나 이
고 악 혼 사 를 은 악 을 싸 앗 기로 그 악 을 낫 타 내 이 기 는 므 르 므 움에 잇 는
거 술 님 어 말 흠 이 라 ○ 四六 너 희 엇 지 나 를 칭 흐 여 쥬 야 쥬 야 흐 고 내 의 말

을 힘치 안느냐 ᄁ ᄂ 뜻내 케 나아 와 내 말을 듯고 힘 헤는 자는 무 슴비 소
로 써 너 회 케 말 흠고 웃 집지 음 웃 헤니 푼 기들 김 허 허 고 터를 반석 우 회
두면 큰 물이 넘쳐 그 집을 밀쳐도 능히 동 치 못 흠은 견고 이 슈리 흠이 요
오 저 듯고 힘치 안느자 는 터 업서 집을 흙 우 회 지 음 웃 헤니 창 슈가 밀
처면 곳너 머 지고 문 어 짐이 크리라

누가복음에 철장

예수 - 빅 성을 그 르 쳐 말을 다 헤고 가 뱉 남에 드 러 가니 ○ = 혼파총의
스랑 헤는 종이 병 헤여 죽어 가는 지라 = 예수 둘 풍문 헤고 유 터 장로 수
인을 보내여 와서 그 종 곳침을 구 헤라 헤니 = 자로 예수의 케 나아 와 고
절이 구 헤여 굶으 터 이 일 노 써 이 사 름의 케 베풀 미 맛당 혼거 시 = 더 우
리 빅 성을 스랑 헤야 회당을 세 웠다 헤니 = 예수 - 흠 씨 갈 서 집에 서 머
지 아니 헤야 서 파 총이 그 벗 술 보내여 굶으 터 쥬 슈고 치 말으 쇼 서 내 집

에 림 허 시 면 내가 감당치 못 허 고 \pm 또 혼내가 나아가도 못 흠지 니다
흔 말 만 발 허 신 죽 종이 반 드 시 나 을 거 시 \pm 나 도 사 름 의 개 봇 고 군 스는
내 게 브 헛 스 니 이 를 명 허 여 가 라 혼 죽 가 고 오 라 혼 죽 오 고 종 으로 허 여
콤 이 를 허 라 허 면 곳 힁 허 \pm 니 다 허 \pm 예 수 \pm 듯 고 거 고 허 낙 예 쪘 는
쟈 들 도 라 보 아 굴 으 샤 터 내 너 회 계 말 허 노 니 이 살 일 의 이 고 치 듯 타 허
밋 눈 자 들 보 지 못 허 옛 다 허 더 라 \pm 부 틴 자 \pm 도 라 가 보 니 병 허 든 종 이
강 강 허 더 라 ○ \pm 못 촘 잊 틈 날 예 예 수 \pm 혼 고 울 예 가 니 일 흠 은 나 인 이
라 모 든 예 조 와 허 다 혼 사 름 이 흠 썩 힁 허 여 \pm 성 문 에 갖 가 오 매 죽 은 자
를 예 고 나 오 는 터 그 어 암 은 파 부 로 이 거 시 독 조 \pm 라 고 울 예 만 혼 빅 성
이 흠 썩 허 니 \pm 쥬 \pm 보 고 어 옛 비 낙 예 굴 으 샤 터 우 지 말 나 허 고 \pm 갖 가
허 가 서 그 널 을 모 지 니 예 인 자 \pm 머 민 눈 지 라 예 수 \pm 굴 으 샤 터 쇼 조 야
내 내 게 명 허 노 니 나 라 허 예 \pm 죽 은 자 \pm 곳 니 러 안 져 팔 허 거 늘 예

수 1 아들 노씨 그 어 맘을 주니 ^{+ 6} 뭇 사 름이 놀 내 여 하느 님을 영 화 ⁺ 여
 굴 으 터 콘 선지 가 우 리 중에 니 른 렛 소 니 하느 님 이 그 빅 성 을 도 라 보 와
 다 ⁺ 고 ^{+ 7} 이에 명 성 이 유 터 와 스 방에 해 여 지 더 라 ^{+ 8} ○ 요 안 닌 의 데 ^{+ 9}
 1 이 일 노 써 스 승 의 계 고 ^{+ 10} 요 안 닌 두 데 ^{+ 11} 즈 를 불 너 쥬 의 계 보 내 여
 굴 으 터 맛 당 이 올 자 가 그 터 뇨 모 르 노 니 다 룬 사 름을 기 드 리 라 는 가 ⁺
 라 ^{+ 12} 두 사 름 이 나 아 와 굴 으 터 밥 텘 레 를 베 ^{+ 13} 흐 는 요 안 닌 가 우 리 를
 보 내 여 날 으 터 맛 당 히 올 자 가 션 성 이 니 잇 가 모 르 노 니 다 룬 사 름을 기
 드 리 라 는 잇 가 ⁺ 헤 더 이다 ^{+ 14} 때에 채 수 1 모 든 병 과 위 험 혼 병 과 악 귀 보
 튼 자 를 곳 치 며 만 흔 쇼 경 을 보 게 ⁺ 헤 더 닌 ^{+ 15} 터 담 ⁺ 헤여 굴 으 샤 터 너 의 본
 바 와 드 른 바 로 써 가 셔 요 안 닌 의 계 고 ⁺ 헤 되 쇼 경 을 보 게 ⁺ 헤며 안 존 방 이
 를 가 ⁺ 헤 헤며 빅 납 풍 ⁺ 헤는 자 를 정 계 ⁺ 헤며 귀 먹 어 리 를 듯 ⁺ 헤며 죽 은 자
 를 다시 날 ⁺ 헤며 가 난 혼 자 ⁺ 헤로 복 음 을 들 니 고 ⁺ 헤 므 른 나 를 브 리 지 안 는

자는 복이라 호여라 ○ 요안늬의 부린쟈 । 도라가니예수 । 요안늬
를 빙쟈 호여뭇사. 룸의 케글으샤 । 터너희들에나가무엇슬보려호느냐
갈더가바름에동호는거시냐 二四 너희나가무엇슬보려호느냐
아름다온웃슬님은거시냐 二五 대개아름다온웃파호샤호는쟈는왕궁에
잇는거시라 二六 그런즉너희나가무엇슬보려호느냐션지냐을흔지라
내너의케말호노니이는션지보담큰거시글에닐너스티 二七 내가스쟈
를너의암희보내여너의길을슈리호리라훔이곳이사룸이라 二八 내너
희케말호노니부인이나은바에는요안늬보담큰쟈 । 업스티그러나
하느님의나라에지극히적은쟈가오히려이사룸보담크니라호니 二九
뭇빅성과제관이밥테례를요안늬의케밧은지라이말을듯고하느님
의을흠을칭찬호되 三〇 오직바리서인과법관이그밥테례를밧지안코
스스로위호여하느님의뜻슬막는지라 三一 쥬글으샤 । 터이제상사룸을

장초엇지 써비 희며 쪼무슴비 스로 써비 기리요 (三二) 희들이 장시에 안
져서로 불너 골으 터우 리피리를 불되너희 뛰닐지 안코 우리 슬픈노린
룰호 되너희우지 아니 혼다 흠조호 (三三) 라요 안느노와셔 먹지도 안코
마시지도 아니호 되너희가 써귀신을 품엇다 (三四) 희고 인 (三四) 인저는 와셔 음식
호 되너희가 말호 기를 탐식호 교술을 즐기는 세관파죄인의 벗시라 (三五)
니 오직지혜 (三六) 그아들노 써그의를 보리라 (三七) 희더라 ○ (三八) 흔바리시인
이예수를 청호여 밥을 흠색호 려호 매예수 1 그집에 드러가자리에 안
젖는 (三九) 성중에 흔녀인은 본리죄잇는지라 예수바리시인의집에안
진줄을 알고 옥합에 향거로운 기름을 담아 가지고 (四十) 예수의 뒤에셔서
발을의지호여 울어 눈물노그발을제시고 머리털노 써문터며 입을 그
발에 접호 고기름으로 써바르니 (四一) 예수 1 청호바리시인이 보고 모움
에닐으 터이사람이 만약 선지면문지 눈자가 엉더 흔녀인인줄 알니라

훔은데 가죄인임이라 ^{四十一} 예수 ^{四十二} 터답 ^{四十三} 허여 ^{四十四} 글 ^{四十五} 으 샤 ^{四十六} 터시 ^{四十七} 몬 ^{四十八} 아 ^{四十九} 내 ^{五十} 네 ^{五十一} 게 ^{五十二} 혼 ^{五十三} 말
이 잇다 ^{五十四} 허 ^{五十五} 니 ^{五十六} 글 ^{五十七} 으 터 ^{五十八} 선 ^{五十九} 성 ^{六十} 님 ^{六十一} 청 ^{六十二} 퀸 ^{六十三} 터 ^{六十四} 말 ^{六十五} 숨 ^{六十六} 허 ^{六十七} 쇼 ^{六十八} 서 ^{六十九} 물 ^{七十} 으 샤 ^{七十一} 터 ^{七十二} 빛 ^{七十三} 놋 ^{七十四} 는 ^{七十五} 자
가 두 ^{七十六} 빛 ^{七十七} 지 ^{七十八} 운 ^{七十九} 자 ^{八十} 잇 ^{八十一} 스 ^{八十二} 니 ^{八十三} 허 ^{八十四} 나 ^{八十五} 는 ^{八十六} 은 ^{八十七} 오 ^{八十八} 십 ^{八十九} 낭 ^{九十} 을 ^{九十} 지 ^{九十} 고 ^{九十} 허 ^{九十} 나 ^{九十} 는 ^{九十} 은 ^{九十} 닷 ^{九十} 낭 ^{九十} 을 ^{九十} 젓
스 ^{九十一} 니 ^{九十二} 갑 ^{九十三} 흘 ^{九十四} 길 ^{九十五} 이 ^{九十六} 업 ^{九十七} 스 ^{九十八} 매 ^{九十九} 다 ^{一百} 면 ^{一百零一} 허 ^{一百零二} 여 ^{一百零三} 주 ^{一百零四} 잇 ^{一百零五} 스 ^{一百零六} 니 ^{一百零七} 그 ^{一百零八} 둘이 ^{一百零九} 치 ^{一百一十} 쥐 ^{一百一十一} 스 ^{一百一十二} 랑 ^{一百一十三} 허 ^{一百一十四} 기 ^{一百一十五} 롤
뉘 ^{一百一十六} 가 ^{一百一十七} 더 ^{一百一十八} 허 ^{一百一十九} 겟 ^{一百二十} 는 ^{一百二十一} 나 ^{一百二十二} 시 ^{一百二十三} 몬 ^{一百二十四} 이 ^{一百二十五} 터 ^{一百二十六} 답 ^{一百二十七} 허 ^{一百二十八} 여 ^{一百二十九} 글 ^{一百三十} 으 터 ^{一百三十一} 내 ^{一百三十二} 뜻 ^{一百三十三} 에 ^{一百三十四}는 ^{一百三十五} 마 ^{一百三十六} 니 ^{一百三十七} 면 ^{一百三十八} 혼 ^{一百三十九} 자 ^{一百四十}
니 ^{一百四十一} 이 ^{一百四十二} 다 ^{一百四十三} 허 ^{一百四十四} 니 ^{一百四十五} 글 ^{一百四十六} 으 샤 ^{一百四十七} 터 ^{一百四十八} 네 ^{一百四十九} 의 ^{一百五十} 론 ^{一百五十一} 이 ^{一百五十二} 올 ^{一百五十三} 타 ^{一百五十四} 허 ^{一百五十五} 여 ^{一百五十六} 부 ^{一百五十七} 인 ^{一百五十八} 을 ^{一百五十九} 도 ^{一百六十} 라 ^{一百六十一} 보 ^{一百六十二} 며 ^{一百六十三} 시 ^{一百六十四} 몬 ^{一百六十五} 의
게 ^{一百六十六} 글 ^{一百六十七} 으 샤 ^{一百六十八} 터 ^{一百六十九} 네 ^{一百七十} 이 ^{一百七十一} 녀 ^{一百七十二} 인 ^{一百七十三} 을 ^{一百七十四} 보 ^{一百七十五} 는 ^{一百七十六} 나 ^{一百七十七} 가 ^{一百七十八} 너 ^{一百七十九} 의 ^{一百八十} 집 ^{一百八十一} 애 ^{一百八十二} 드 ^{一百八十三} 러 ^{一百八十四} 오 ^{一百八十五} 매 ^{一百八十六} 너 ^{一百八十七} 는 ^{一百八十八} 물 ^{一百八十九} 노 ^{一百九十} 써
내 ^{一百九十一} 발 ^{一百九十二} 을 ^{一百九十三} 씻 ^{一百九十四} 지 ^{一百九十五} 아니 ^{一百九十六} 허 ^{一百九十七} 되 ^{一百九十八} 오 ^{一百九十九} 직 ^{一百二十} 더 ^{一百二十一} 눈 ^{一百二十二} 물 ^{一百二十三} 노 ^{一百二十四} 내 ^{一百二十五} 발 ^{一百二十六} 을 ^{一百二十七} 죄 ^{一百二十八} 시 ^{一百二十九} 고 ^{一百三十} 머 ^{一百三十一} 리 ^{一百三十二} 덤 ^{一百三十三} 노 ^{一百三十四} 문 ^{一百三十五} 터
고 ^{一百三十六} 너 ^{一百三十七} 눈 ^{一百三十八} 입 ^{一百三十九} 으로 ^{一百四十} 나 ^{一百四十一} 를 ^{一百四十二} 맛 ^{一百四十三} 추 ^{一百四十四} 지 ^{一百四十五} 아니 ^{一百四十六} 허 ^{一百四十七} 되 ^{一百四十八} 오 ^{一百四十九} 직 ^{一百五十} 더 ^{一百五十一} 눈 ^{一百五十二} 물 ^{一百五十三} 노 ^{一百五十四} 내 ^{一百五十五} 발 ^{一百五十六} 에 ^{一百五十七} 점 ^{一百五十八} 허 ^{一百五十九} 기 ^{一百六十} 를 ^{一百六十一} 마 ^{一百六十二} 지 ^{一百六十三} 아니 ^{一百六十四} 허 ^{一百六十五} 고 ^{一百六十六} 너 ^{一百六十七} 눈 ^{一百六十八} 기 ^{一百六十九} 름 ^{一百七十} 으로 ^{一百七十一} 써 ^{一百七十二} 내 ^{一百七十三} 머 ^{一百七十四} 리 ^{一百七十五} 에 ^{一百七十六} 바 ^{一百七十七} 르 ^{一百七十八} 지 ^{一百七十九} 아
니 ^{一百八十} 허 ^{一百八十一} 되 ^{一百八十二} 오 ^{一百八十三} 직 ^{一百八十四} 더 ^{一百八十五} 는 ^{一百八十六} 향 ^{一百八十七} 고 ^{一百八十八} 로 ^{一百八十九} 기 ^{一百九十} 름 ^{一百二十} 으로 ^{一百二十一} 써 ^{一百二十二} 내 ^{一百二十三} 발 ^{一百二十四} 에 ^{一百二十五} 바 ^{一百二十六} 름 ^{一百二十七} 이 ^{一百二十八} 라 ^{一百二十九} 고 ^{一百三十} 고 ^{一百三十一} 로 ^{一百三十二} 내 ^{一百三十三} 네 ^{一百三十四} 게 ^{一百三十五} 말 ^{一百三十六} 허 ^{一百三十七} 노 ^{一百三十八} 니 ^{一百三十九} 더 ^{一百四十} 의 ^{一百四十一} 만 ^{一百四十二} 훈 ^{一百四十三} 죄 ^{一百四十四} 샤 ^{一百四十五} 험 ^{一百四十六} 은 ^{一百四十七} 그 ^{一百四十八} 스 ^{一百四十九} 랑 ^{一百五十} 험 ^{一百五十一} 이 ^{一百五十二} 만 ^{一百五十三} 흠 ^{一百五十四} 이 ^{一百五十五} 요 ^{一百五十六} 샤 ^{一百五十七} 험 ^{一百五十八} 에 ^{一百五十九} 죽 ^{一百六十} 은 ^{一百六十一} 자

는 그 스랑 흠이 져 음이라 四八 흐고 이에녀인의게골으샤되네죄사흐옛
다하니 四九 흠색 안 젖던 자 | 스스로 히골으 터이 엊더 혼사 름이 죄를 샤
흐느냐하니 五〇 예수 | 너인의게널너골으샤터너의밋음이너를 구원
흐노니안연이도라가라하더라

누가복음 데 팔장

몇 날을 지내여 예수 | 두루 성과촌에 힝흐여 전 흠며 하느님의 나라 복
음을 보는 뒤 열두 데즈 흠색 흐고 二 또 혼두어녀인이잇스니 악귀가 브
터연약훈바로 곳침을 엊은자 | 막달엔의마리암이니 일즉 닐곱귀신
을조차준쟈요 三 또 혜롯의집사 쿠사의 쳐요 안늬요 또 소산나와다른
부인여러이다잇는 바로써 일을 엿두더라 ○ 四 “허다 혼사 름이모둔고
을노브러 모여나아오니 예수비스로 말숨흐샤터 五 농군이나 가족노
를햇친다햇칠때에 길것희쩌러진거손사 름이藠으며 공중에 석가다

먹고 六 또 돌자갈스이에 쪄려진 거순싹이나며 곳마름은 져짐이 업슴
이요 七 또 가시가온터 쪄려진 거순가시가웃치자르그리우고 八 또 도
흔짜에 쪄려진 거순나셔결실이 빅빅니라 말을다하고부르더귀잇스
면드르라호니 ○ 九 데즈 | 웃즈 와글으 터이비스가엇잠이니잇가 +
글으샤더하느님의나라비결은너희를주워알게하고오직다른사람
인즉비스를베풀든그보고분지못호며듯고섞닫지못홈이니 + 1 이비
스가이거시라종자는하는님의도 | 니 + 2 길겟희 쪄려진 거순사람이
도를도록매마귀곳나르러그모음으로말뭐암아아스감은밋어구원
엇음을면께홈이요 + 3 돌자갈스이에 쪄려진 거순사람이도를듯고줄
겨밧앗스나다못뿌리가업서잠싼잇다가시험을맞나면비반호는거
시요 + 4 가시가온터 쪄려진 거순사람이도를듯고가나이세상의모든
성각과제물과연락이그리워결실치못호는거시요 + 5 휘흔짜에 쪄려

진 거 손사람이 올 코 어 진 모 음 으로 써 도 를 드 러 적 회 고 촘 음 으로 써 결
 실 흐 는 거 시 라 ○ 사 름 이 불 을 혀 고 그 른 스 로 써 덤 허 상 아 래 두 지 안 코
 오 직 화 터 우 에 노 음 은 드 러 오 는 자 로 그 벳 술 보 캐 흠 이 라 ○ 감 춘 거 시
 낫 타 나 지 아 님 이 업 고 온 밀 훈 거 시 나 알 게 흠 지 아 님 이 업 스 니 라 ○ 고
 로 듯 는 바 를 삼 가 흠 라 잇 는 자 는 더 주 고 업 는 자 는 곳 솟 에 잇 는 바 쇠 지
 아 스 가 는 니 라 흠 더 라 ○ ○ 예 수 의 어 마 님 과 동 성 이 나 아 와 사 름 이 만
 흠 시 러 곰 갓 가 흠 못 흠 니 ○ 흠 이 고 흠 여 골 으 터 쥬 의 모 친 과 동 성 이 뱗
 괴 셔 셔 쥬 를 보 고 져 흠 니 다 흠 니 ○ 터 답 흠 여 골 으 샤 터 내 의 어 마 님
 과 동 성 은 이 하 는 님 의 도 를 듯 고 흠 흠 는 자 | 라 흠 더 라 ○ ○ 몇 촘 흠 로
 는 예 수 | 데 즈 로 흠 쪽 빙 에 올 나 골 으 샤 터 우 리 호 슈 를 건 너 자 흠 고 이
 예 흠 선 흠 니 ○ 흠 흠 때 에 예 수 자 는 터 몇 촘 바 름 노 리 급 짜 히 호 슈 에 는
 려 빙 가 온 터 물 이 향 심 히 위 터 흠 니 ○ ○ 데 즈 | 나 아 가 셔 워 골 으 터 선 성

님은 우리 망호여 가느이다 흐니 예수 셔여 바름파물 결을 척 망흔되 즉
시긋 치고 안정흐는지라 二五 니 러닐으샤 되너의 및음이 어듸잇느냐 흐
니뭇사름이 득려워괴괴히녁여서로 굴으듸 이엇던사름이 기로바름
파물을 명호여도 훈순종흔다 흐더라 ○ 二六 기라신짜에니르르니가니
느마진편이라 二七 예수 | 무희느리매성느에잇는훈사름을 맛나니이
귀신이 브튼쟈 | 라오래 웃슬남지안코집에도 거치안코무덤에거 흐
는지라 二八 예수를 보고 업더여크게 불너글으더지극히 놓흔하는님의
아들 예수는 내공으로 더보러 엇더 흐뇨 구호노니나를 고성케 말나 흠
온 二九 예수 일즉귀신을 명호여 그사름으로 나오라 흠이라이 귀신의 채
단련 억제호제가 여러번 되여 적회매쇠사슬파고 랑을 치우 되고 채갓
초은 거슬쓴코 귀신의 채들에 쫓침이 된지라 三十 예수 | 무르샤 되네 무
슴일 흠이냐 흐니 굴으듸 전이라 흠은 귀신드러간쟈 | 만음이라 三一 예

수의제구호기률명호여디육에드러가지안제호랴더니^{三三}못총거괴
 도야지무리잇서산에서먹거늘드러감을구호매허호니^{三三}귀신이그
 사룸의제나아와돛회제드러가니돛회무리찬변언덕으로다른느려
 호슈에색지거늘목인이보고^{三四}다르나성시와촌에고훈터^{三五}못사룸
 이나가호둔바를보려호여예수의제나아가귀신브터든사룸을보니
 웃술님고련연히예수의발아래의지호옛거늘이에무서워호니^{三六}본
 자|귀신브터던자|엇더제구원엇음으로써고효터^{三七}기라신스방
 에뭇사룸이그셔나기물구호온무서움이심호일너라예수비에울나
 도라가는터^{三八}귀신브터든자|호색호기률구호매예수|보내여^{三九}
 은샤되^{四〇}네집에도라가하느님이네게힝흔바큰일노씨고호라호니
 더이에가온고을에서예수조괴를위호여힝흔바엇더흔큰일을전호
 더라○^{四一}예수도라올때에뭇사룸이영접호온기드림을인호일너라

— 혼사 봄의 일 흠은 이로니 회당 쟈지 흠자 — 라와 서예 수의 발아래
업 텨여 그 집에 내 둘을 구 흠은 — 외뜰의 나히 열둘 인 터 거의 죽게 되 엿
는지라 예수 힝 흠적에 웃사 봄이 옹위 흠는 터 — 혼녀인 이 터 핫중 열두
회에 의 원으로 위 흠여 그 산업이 모전 흠고 도 능히 곳침이 업손자 — 라
예수의 뒤에 나아와 그 웃단을 문지니 터 핫중이 곳낫는지라 예수 곱
으샤 터 뉘가 나둘문지 는냐 흠니 다업 는이다 흠피들과 및 흠썩 흠
눈자 — 곰 — 터 선성님 웃사 봄이 밀밀이 옹위 흠 옛 는이다 흠니 — 예수
— 곰 — 터 나둘문지 는자 — 잇스니 능 흠이 날노 말미 암아나 음을 쐐
닭노라 흠니 — 네인이 능히 숨기지 못 흠줄알고 썰며니 르러 업터여 웃
사 봄의 암희서 문진연고와 및 죽시 나음으로 써고 흠니 — 곰 — 터 뉘
아네 멋음이 너를 구원 흠니 안연이도 라가라 흠더라 ○ — 말 흠때 애회
당초지 혼자 의 집으로 오는자 — 곰 — 터 그 터의 뜰이 죽었스니 선성을

슈고 롬 채마 르 쇼셔 헤 놀 ^포 예수 | 듯 고 터 담 헤 샤 터 무 서 워 말 고 오
직 멋 은 죽 네 쫄 이 구 원 을 엇 으 리 라 헤 고 ^포 집 에 드 러 가 는 터 피 들 과 야
곱 파 요 안 니 와 너 ^으 의 부 모 의 에 는 다 룬 사 름 은 드 려 가 지 못 헤 채 헤 데
라 ^포 뭇 사 름 이 울 기 을 헛 히 헤 니 예수 | 글 ^으 샤 터 우 지 말 나 너 ^이 죽 지
안 코 잔 다 헤 니 ^포 뭇 사 름 이 비 웃 슴 은 그 죽 음 을 알 미 라 ^포 예수 | 너 ^으
의 손 을 잡 고 불 너 글 ^으 샤 터 너 ^으 야 니 러 나 라 헤 매 ^포 그 령 혼 이 회 복 헤
여 즉 시 니 러 나 거 늘 명 헤 먹 을 거 솔 주 라 헤 니 ^포 그 부 모 | 이 상 이 너
이 는 지 라 예 수 | 경 계 헤 여 힝 혼 바 로 씨 사 님 의 제 고 치 말 나 헤 시 더 라
누 가 복 음 데 구 장

예 수 | 열 두 데 자 를 불 너 능 음 과 권 세 틀 주 어 모 든 귀 신 을 낙 제 헤 며 병
을 곳 치 게 헤 고 ^으 보 내 여 하 는 님 의 나 라 도 를 전 헤 며 병 헤 는 자 를 낫 게
하 며 ^으 굳 으 샤 되 길 에 쓰 는 것 과 혹 지팡 이 와 혹 자 르 와 혹 량 식 과 혹 은

과 후 두 떨 옷술 가지 지 말고 四 너 희드러 가는 바 집에 거호다가 뜨호거
괴서 쪄 나라 五 너 희를 뒤 점지 안는자 | 잇거든 그 곳술 쪄 날 때의 발에
몬지를 터러 써 물사롬의 게 간증을 삼으라 六 호나 六 데조 | 나가 두루 촌
에 노닐어 복음을 전호며 병을 꽃치더라 ○ 七 분봉군 해롯이 예수의 힘
호바둘듯고 쥬저 흠은 흑요안니가 디시니 렸다 八 호이리야 가나
타 낫다 九 며 후넷선지 十 호나히다시 날 엊다 흠이라 九 해롯이 굴 十一 티요
안니를 내버햇는터 이제 또 이린 말을 드르니 과연 엊더 혼사롬이 높호
여보고 저호더라 ○ 十二 몸데조 | 도라와 흉흔바로 써 예주 의 게고 十二 호니
드리고 그 육히 물너가 바식다 들에 가는 터 빛사롬이 알고 죗거늘 十三 예
수 | 접호여 하느님의 나라를 말호며 므로의 원쓸쟈를 꽃치더라 十四 날
이 점 물제 열두 데조 | 나아와 굽으 터우리여 죄는들이니 청권티 물사
롭을 헷쳐 두루 촌리에 가류숙하고 밥을 엿제 흐죠셔예 주글 十五 샤티너

희가 공급 호라 ^니 _니 굴 ^으 둑 우리 캐는 떡 다솟개 와고 기두 마리 만잇
 소니 가셔 먹을 거술사지 아니면 엇지 써이 만흔사름을 먹이 리요 ^호 _니
^그 그사 ^로 이대 강오 천인이라 예조의 계굴 ^으 샤티 웃사름을 뼈를 지어
 안치 되미 뼈에 쉬 힌식 호라 ^호 _니 ^예 _조 1 그말 ^코 치다 안치 매 ^하 _예 수
 1 쪽 다솟개 와고 기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슈 ^하 고 뼈여 데
 조를 주워 웃사름의 계노 ^으 _니 ^다 비부르 캐먹고 그 늄은 부시 럭이 열
 두 광우리 둘거 두니라 ○ ^모 총예수 1 혼자 비는 터 예조 1 흠색 ^호 _니
 무르 터 ^물사 ^로 이나를 뉘라 ^호 더나 ^하 _터 답 ^하 여 ^굴 ^으 둑 ^혹 밥데레 ^를 베
 프는 요 ^안 ^느라 ^호 며 ^혹 이리야라 ^호 며 ^혹 넷선지 ^호 나히 다시 닐 엇다 ^호
 더이다 ^하 _터 굴 ^으 샤티 너희는 나를 뉘라 ^호 느냐 피들이 ^터 답 ^하 여 ^굴 ^으 터
 하느님의 키리스도 쓰 1 니이다 ^호 _니 1 예수 1 경계 ^하 여 ^사 ^로 제 ^스 장파선
 치 말나 ^호 1 또 ^군 ^으 샤티 인조가 반드시 고성 ^하 여 ^장로 제 ^스 장파선

비의 봄린바니 되여 죽임을 보왓다가 삼일만에 다시 일겟다하고
뭇사름의 계닐으샤되 내이이데자되고 저히면몸을 이괴여 날노심노들
을지고 쪘치라 ^{二四}므로 그성명을 구원코 져하는자는 도로 억망하고 나
를위하여 성명을 망하는자는 구원 ^{二五}하리라 ^{二五}사람이 텐하를 엊고 스스
로 망하고 날으면 무슴유익홈이 잇소리요 ^{二六}므로 나와 내의 도를 봇고
러워하는자는 인조가ぞ괴련부와 멧련스영화로 써람흘때에 쪼호 그
사름을 봇그려워하리라 ^{二七}내실노너의 계닐으노니여 괴선자니 흑죽
기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보리라 ^{二八}더라 ○ ^{二九}그후 칠팔일만에 예수니
폐들과요 안뇌와 야곱을 드리고 산에 올나빌야 ^{二九}빌때에 용모
가변하고 그옷시결빅 ^{三十}여 빗술놋코 ^{三十}모쇼와 이리야 두사름이 더브
러 말하는 ^{三十}영광이나 나나며 예수니 ^{三十}장초예루살임에서 죽음일움
을 말하니 ^{三十}폐들과 함께하는자니 곤히여 조을다가세여 그영화와 쪼

두사람이 흠뻑 셋숨을 보고 서로 떠날 때에 피들이 예수 죽은 날 으니 선
성님 우리 여기 잊슴이 심히 도느니 우리를 용납하 예의 막세 간을 지으
되 하나는 쥬불위하고 하나는 모쇼를 위하고 하나는 이리야를 위하겠
느이다 하나스스로 일운바를 아지 못하더라 三四 말할 때에 구름이 덥혀
몸이 구름에 드러가 거늘 무서워하니 三五 구름으로 브터 소리 잊셔 굴으
샤되 이는 내의 턱 혼아들이니 너희드르라 하더라 三六 소리 굿 치매 예수
혼자 잊슴을 보고 데노니 잠잠하고 당시에 본 바로 써 사람의 게고 치안
터라 三七 몇 촘 잊든 날산에는 리니 만 혼사람이 영접하 눈 三八 그 중에 혼
사람이 불너 골 三九 터 선성님 구호 노니 내의 아들을 도라 보쇼서 三九 이는
와아 돌연히 귀신이 브터 급작이 부르지자 고절 알하며 거품을 흘리게
하여 해를 더하고 쫓칠 수 없기로 ○ 四十 쥬의 예노 죽기로 구호 되 능치
못하더이다 하니 四一 예수 골 四二 샤되 삶 혼자라 멋음이 업고 피역 혼세상

아내 너 희를 흠색 ^하며 너 희를 촘은제가 몇 때 ^나 네 아들을 두 리고 오라
하니 ^되 올 때에 귀신이 색구려 치고 질 알 ^케 하거늘 예수 ^나 더러온 귀신
을 칙망 ^{하고} 으 희를 곳쳐 그 아비를 주니 ○ ^{四三} 뭇사람이 하느님의 큰 능
력을 칙망 ^하며 그 힝 ^하 신바를 괴괴 하느이는 때에 예수 ^나 데 ^노 의 계
설 ^으 샤 ^되 ^{四四} 인 ^노 | 장 ^초 사람의 깨끗 치리니 이 말 노 배 귀에 간직 ^하라
하 되 ^{四五} 데 ^노 | 명 ^박 지 ^못 흠은 이 말이 은밀 ^하여 씨 닷지 ^못 하니 감히 뭇
지 못 ^하 더라 ○ ^{四六} 데 ^노 | 스 ^스로 이의론 ^하여 뉘가 큰 ^나 하니 ^{四七} 예수 ^나
그 쫓술 알고 어린 ^으 희를 쬐 ^하여 ^노 괴것 희두고 ^{四八} 데 ^노 의 계 ^설 ^으 샤 ^되
므로 내의 일 ^홈으로 써 이 런어 린 ^으 희를 터 ^접 ^홈이니 ^나 희 중에 가장 적은 ^쟈 가 ^곰
요 나를 터 ^접 ^홈면 나보내니 터 ^접 ^홈이니 ^나 희 중에 가장 적은 ^쟈 가 ^곰
이 되느니라 ○ ^{四九} 요 안 ^너 터 ^답 ^홈여 ^걸 ^으 터 ^선 ^성 ^남 ^우 리 ^훈 사람 이 ^쥬 의
일 ^홈으로 써 ^귀 신 쫓침을 보고 금 ^홈은 그 ^우 리 ^를 쪽 ^제 아 ^님이 ^나 이다 ^{포+}

27

예수 - 굴으샤 터금 치 말나 믤트우리를 치지 안 눈자는 우리를 향호는
니라 호더라 ○ 포 2 예수 - 하늘에 올을 날이 거의 내르 매 예루살임에 가
기 를 뎅호고 포 3 사롭을 암서 보내여 사마랴 흐마을에 내르 러써 샤파을
예비 호더니 포 3 마을사롭이 드리지 아님은 그 예루살임을 향호여 힝호
일네라 포 4 데 저 야곱과 요안 니이 둘 보고 굴으 터쥬야우리로 불을 불너
하늘노느려 멀호기 를 넷이리야 의 힝호바와 고치호샤이다 호니 포 5 예
수 - 도라 보고 척망호여 굴으샤 터네모 움엇더 흠을 네스스로 아지못
호는도다 포 6 대개인조니니르 매인명을 멀코 져 아니 코이에 구원호고
제흔다 호고다룬마을노가더라 ○ 포 7 힝호때에 혹이 굴으 터쥬무론어
더던지내죽고 져호느이다 포 8 예수 - 굴으샤 터여호도굴이잇고나는
새도깃시잇스터오직인조는 머리둘곳시업다호고 포 9 죠호사롭의게
말호샤더나를죽치라호니 굴으 터쥬나를용납호여몬져도라가아밤

울장스케흐쇼서^{六+}예수 | 골으 샤티죽은쟈를맛거 그죽은사람을장
스흐고너는가셔하는님의나라를전흐라흐더라^{六-}또훈사람이골으
티내쥬를좇겟스니다못나를용남흐여몬져집사람을작별케흐쇼서^七
예수 | 골으 샤티손에밧가는연장을잡고뒤를도라보는쟈눈하는
님의나라에싸지아니니라흐더라

누가복음데십장

그후에쥬 | 칠십인을세워둘식보내여저의가고저흐는바모둔고을
과모둔짜에가게흐며^二골으 샤티거둘거손만코삭군이적으니농쥬
의제구흐여삭군을보내여거두게흐리니가라^三 내너희를보내는거
시양의식기가일희무리에드러가는것곳흐니라^四 전티와혹자루와
혹신을가지지말며길에셔사room으로더브러인스치말고^五사room의집
에드려가골으티이집이편안흐라흐여라^六 만약편안함이맛당호사

29
로 이 잇스 면너의 편안이 림흐고 그려 치아 난즉 너희께로 도라 오느니
라 ✕ 그 집에 거하여 공급하는 바를 먹으며 마시라 삽군이 그 갑술 엊음
이 싸니 이 집으로 더집에 옴지 말고 ✕ 드러가는 고을사람이 너의 를 터
접 훈즉 그 베포는 바를 먹고 ✕ 그 중에 병하는 자 | 잇거든 곳치고 또 웃
사람의 게고 허 되하는 님의 나라 이 너희 게갓 가 왔다 흐고 ✕ 드러가는
고을사람이 너희를 터접지 아닌즉 거리에 나가 ✕ 금으 터우리 발에 오
른 돈지서 지터러 너희를 주리라 흐고 다못하는 님의 나라 이 너희 게갓
가온 줄 알나 흐여라 ✕ 내 너의 게닐으 노니 그 날에 소동의 형벌이 이고
을보 담도로 여쉬 염즉 흐리라 ✕ 저화라 너희 코라 신아 저화라 너희 바
서 디야 너희가 온디셔 힝흔바 능흔일을 만약 두로와 시돈 ✕ 셔 힝 흐였
스면 일즉 이 뵈와 저를 쓰고 안져회지 흐엿스리라 ✕ 다못판죄 흐는 날
에 두로와 시돈의 형벌이 너희보다도로 여쉬오리라 ✕ 가별남아 너희

하늘로 치는 놈 겟는 냐 양초디부에 써러지리라 ^{〔+6〕} 너희를 듣는 자는 나를
드롭이요 너희를 막는 자는 나를 막음이요 나를 막는 자는 나를 막
음이라 하니 ^{〔+7〕} 칠십인이 즐거워도 라 보아 굳으니 쥬야 쥬의 일 흠으
로 써귀신서 지우리게 향복 혼다 ^{〔+8〕} 하니 예수 — 골 ^{〔+9〕} 으 샤 ^{〔+10〕} 터내사탄이 번
기고 치하늘노뼈러짐을 보았느니 ^{〔+11〕} 내너희게 권세를 주워 비암과 전
갈을 ^{〔+12〕} 뿐으며 원슈의 다능함을 억제 ^{〔+13〕} 하여 너희를 해하는 자 — 업느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향복 흠으로 써즐거워 말고 다 못너희일 흠이
하늘에 거룩 흠을 즐거워 ^{〔+14〕} 하라 ^{〔+15〕} 더라 당시에 예수 — 성령이 깃거하
여 ^{〔+16〕} 굽으샤티아바니런디의 쥬야내아바니를 ^{〔+17〕} 감샤 ^{〔+18〕} 하노니이도를 즐거
온자와 ^{〔+19〕} 동달혼자의게 ^{〔+20〕} 눈감초고적조의게 ^{〔+21〕} 나타내 ^{〔+22〕} 옛느니션 혼지라 아
바니게이 ^{〔+23〕} 고치깃거 ^{〔+24〕} 기는 ^{〔+25〕} 만물이아바니로 말미암아나를주 ^{〔+26〕} 월느니
나아바니외에는 ^{〔+27〕} 뉘가아들을 ^{〔+28〕} 아는이업고아들과 ^{〔+29〕} 및아들이 즐거나라

내 민자 외에는 뉘가 아바니를 아는 자 - 업느이다 - 허고 데즈를 도라
보고 스스로 이 굽으 샤 터 너 회보는 바를 보니 그 눈이 복이라 - 내 너의
제 널으 노니 만 혼선지와 군왕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 져 허 되시려 꿈보
제 뜻 허고 너의 뜻은 바를 듯고 져 허 되시려 꿈듯지 못 허 옛느니라 - 허더
라 ○ 흐 흔법스 가니 러시 힘 허여 굽으 터 선성님 내 엇지 허여 영성을 엊
으리요 허니 - 굽으 샤 터 법에 고록 흔바 엇더 허여 너의 외오는 바 - 엇
데 흐 냐 터 담 허여 굽으 터 모음을 다 - 허여 목숨을 다 - 허여 힘을 다 - 허여
웃을 다 - 허여 쥬너의 하느님을 소랑하고 또니 웃을 소탕하고 기를 제 몸곳치
흐라 - 허 옛느이다 - 굽으 샤 터 너의 말이 올타이 둘 힝 혼죽사느니라 - 허
데 허 데스스로 올 혼체하고 예수께 굽으 터 뉘가 내의니 웃니요 허니 -
예수 - 터 담 허여 굽으 샤 터 후이 예루살임으로 브터 예리코에는 려오
다가 강도를 맞나 그 웃술썩았기고 또 쳐서 거의 죽게 허여 브리고 갖는

예 三 몇 춤 훈제 人 | 길 노 누 려 가 다 가 보 고 마 조 지 나 가 고 三 죠 리 위 사
풀 이 그 곳에 니 르 러 나 아 가 보 고 또 훈 마 조 지 나 가 되 三 사 마 랴 사 름 이
행 乎 여 그 땁에 니 르 러 보 고 어 옛 비 넉 여 암 회 갓 가 이 乎 여 三 기 름 과 술
로 써 생 혼 곳에 부 위 싸 익 고 ト 고 증 성 으로 써 터 우 고 인 도 乎 여 ト 기 름 예
매 른 려 도 라 보 고 ト 잇 틈 날 은 두 돈 을 채 乎 여 ト 기 름 주 머 굴 乎 터
애 세 름 을 도 라 볼 때 부 비 가 만 약 더 만 으면 내 도 라 을 때에 갑 흐 리 라 乎
예 人 三 네 三 뻗에 눈 이 세 사 름 중에 뉘 가 강 도 맞 는 자 의 니 웃 니 냐 乎 니
는 굴 乎 터 어 옛 비 넉 인 자 | 니 이 다 乎 니 예 수 | 굴 乎 샤 터 네 가 셔 이 ト
체 행 乎 라 乎 데 라 ○ 三 몇 사 름 이 흥 乎 때에 예 수 | 흥 마 을 에 드 러 가 니
말 태 라 乎 는 네 인 이 집에 서 맛 고 ト 그 동 성 바 리 암 이 예 수 의 말 아 태 안
제 도 툴 드 르 니 ト 말 태 옛 투 는 일 이 만 으 매 심 히 빛 바 예 수 의 제 나 아 와
굴 乎 터 네 의 동 성 이 나 혼 자 일 을 옛 투 라 乎 는 터 쥬 뻗 乎 지 안 는 니 잇 가

청전터 명호여 나를 도웁게 해 쇼서 예수 1절 0 샤티 말다 말다 야 네
넘려 해 며 번거 흔거 시 뜻치 만호나 그려나 쓸바는 호나 이라 홍온마
리암이 선호직업을 턱 해 옛스니 곳가히 삐앗지아 님이라

누가복음 데십일장

못 촘 예수 1호곳에서 빌때에 빌기를 다해 호데 1절 0 되쥬야 우
리둘 빌기를 그르쳐요 안너 그데 3절 0 그르침고 치해 쇼서 호니 3절 0 샤
터너희 빌째에 널 0 터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네일홍이 거룩 해옵
시며 네나라 하립 해 시며 네 쫓시 하늘에서 일우시 듯따희셔 도열우옵
시며 오늘날우리 쓰는 량식을 주옵시며 우리 가슴의 죄를 샬해여 준것
굿치우리 죄를 샬해여 주옵시며 우리로 해여 곰시험에 인도 해지마옵
시며 다만 우리를 악호 터셔 나오게 해옵 쇼서 이 러제 해여라 ○ 王 稽
으샤 터너희 중에 벗시잇서 저밤에 니르러 굽 0 터벗아 청전터 떡세개

만나 룰 쑥 이라 ^六 내 의 벗 시 길 노 브 터 나 아 왔 는 닥 공 급 홀 거 시 업 다 ^호
면 ^七 더 안 에 서 터 담 ^호 여 골 ^으 터 괴 롬 ^게 말 나 문 을 닷 고 ^으 히 들 괴 내 가
상 에 잇 스니 능 히 니 러 나 너 를 주 지 못 ^호 젯 다 ^호 리 라 ^八 내 너 히 ^게 널 ^으
노니 비 록 벗 의 연 고로 날 너 주 지 안 코 그 박 절 흠 을 인 ^호 여 니 러 쓸 바 를
주 리 라 ^九 내 도 너 의 계 널 ^으 노니 달 나 혼 즉 너 히 를 주 고 ^으 진 즉 맛 나 고
문 을 두 드 린 즉 여 러 주 리 니 ⁺ 므 르 구 ^호 는 자 는 엊 고 ^흐 는 자 는 맛 나 고
문 을 두 드 리 는 자 는 열 널 지 니 라 ^{+ -} 너 희 중에 아 비 된 자 뉘 가 아 들 이 ^역
을 구 ^호 는 터 돌 을 주 며 고 기 를 구 ^호 는 터 터 로 비 암 을 주 며 ^{+ -} 알 을 구 ^호
는 터 전 갈 을 주 랴 ^{+ -} 너 희 비 록 악 ^호 나 뜨 흔 물 건 으로 써 조 식 줄 줄 을 알
지 니 ⁺ 흐 물 며 련 부 성령 으로 써 구 ^호 는 자 를 주 지 아니 랴 ^호 더 라 ○ ^{+ -} 예
수 1 호 병 어 리 귀 신 을 쫓 치 매 귀 신 이 나오 고 병 어 리 말 ^호 니 뭇 사 름 이
괴 괴 이 넉 이 는 터 ^{+ -} 혹 이 골 ^으 터 더 귀 왕 비 시 불 을 빙 자 ^호 여 귀 신 을 쫓

는다. 허고 ^{十六} 또 하늘 노 브녀 징조를 구호여 시험하는 자잇소니 ^{十七} 예수
그 쫓술 알고 굴으샤되 나라 이스스로 닷토면 반드시 멀호교집이스스
로 닷토면 반드시 기우러지느니 ^{十八} 만약 사한이스스로 논호이면 그나
라이 엇지 써셔 래너희 말이 내가 비시 불을 빙자 허여 귀신을 쪽는다. 허
니 ^{十九} 내가 만약 비시 불을 빙자 허여 귀신을 쪽치면 너희조데는 뉘를 빙
쟈 허여 쪽느냐고로 더너희를 판죄 허리라 ^{二十} 만약 내가 하느님의 손을
빙자 허여 귀신을 쪽친즉 하느님의 나라 이너희께 립호 옛느니라 ^{二十一} 장
스가 갑쥬 허고 궁을 직 흰즉 잇는거시다 무소 허되 ^{二十二} 오직 더 날낸자 |
니 ^{二十三} 러이 권즉 그의 지하는 바 갑쥬를 뻬았고 그저 물을 논호는니라 ^{二十四}
나로 더 브러 흠색 안는자는 나를 터역 흠이요 나로 더 브러 거두지 안는
자는 헷침이라 ^{二十五} 허더 라 ^{二十六} 더러온 귀신이 사룸을 뻬나사막에 노니러 편
안을 구하다가 엊지 못하고 굴으티 내가 온바집으로 도라가리라 허고

니 르 러 정 제 허 쥬 리 흠 을 보 고 이 예 가 또 닐 곱 귀 신 저 보 담 악 혼 자
를 드 리 고 드 러 가 거 허 니 그 사 름 의 후 환 이 전 보 담 더 욱 심 허 더 라 ○
말 흘 떠 에 혼 너 인 이 소 리 쳐 굴 으 터 주 둘 나 운 이 와 젓 익 이 니 눈 복 이 라
허 니 ○ 예 수 一 골 으 샤 터 하 는 님 의 도 를 듯 고 적 회 는 자 의 복 이 이 보 담
크 니 라 허 더 라 ○ ○ 뭇 사 름 이 모 이 매 예 수 굴 으 샤 터 이 세 터 는 악 혼 지
라 정 죠 를 구 허 니 선 지 요 나 의 정 죠 외 에는 정 죠 로 써 보 이 지 안 켓 다 ○
요 나 니 니 워 사 름 의 제 정 죠 둠 꾸 쳐 인 저 또 혼 이 제 터 에 그 러 허 리 라 ○
판 죄 흘 떠 에 남 방 너 왕 이 니 죄 이 세 터 사 름 을 죄 중 은 더 대 국 으로 브 터
솔 노 몬 의 지 혜 를 드 름 이 니 흘 를 여 솔 노 몬 보 담 존 자 여 고 옛 는 니 라 ○
판 죄 흘 떠 에 니 니 워 사 름 이 이 세 터 로 흠 죄 니 러 판 죄 흠 은 더 요 나 의 전
흐 으로 써 회 기 흠 이 니 흘 를 여 요 나 보 담 존 자 여 고 옛 는 니 라 ○ ○ 빼 사
름 이 등 물 을 해 그 우 혼 터 와 말 아 래 두 치 안 코 화 터 우 애 둠 은 드 라 오 는

자로 그 빛 출보게 흠이라 몸에 등불은 네 눈이 니 눈이 붉은 죽은 몸이
넉넉히 붉고 눈이 흐린 죽 몸이 넉넉히 어둡니 ³⁻² 고로 너희 안에 빛 치
어 두을 가조 심호라 ³⁻³ 만약 온 몸이 붉아 일호도 어두움이 업소면 등불
빛치 너희 계빛 최오는 것 ³⁻⁴ 치붉으리라 ³⁻⁵ ○ 말할 때에 바리시
인이 흠색 밥 먹으려 청호매예 수드러가 안즈니 ³⁻⁶ 바리시인이 그 몬져
손씻지 안코 먹음을 보고 괴괴아녀이 거늘 ³⁻⁷ 쥬걸으샤 ³⁻⁸ 터 너희 바리시
인은 잔과 반밧과 눈정히 ³⁻⁹ 흐고 오직 그 안인 죽토식과 불의에 거소로 써
치웠스니 ³⁻¹⁰ 미련흔쟈야 그 밧과를 지은 자 ³⁻¹¹ 또 흔그안을 지음이 업는 나
모오직 담은 바로 써사름을 구제 ³⁻¹² 흔죽너의 계정치안님이 업스리라 ³⁻¹³
저화라 너희 바리시인 아니의 박하와 유향과 모든 치소를 열에 그 ³⁻¹⁴ 흔나
록덜 광도와 하느님스랑 흠을 폐 ³⁻¹⁵ 흔나 그려나이는 너희 맛당히 흥흘
바요며도 가히 아니 치못할거시라 ³⁻¹⁶ 저화라 너희 바리시인 아니 너희는

회당에 슈좌와 장리에서 인사를 소탕하는 나라 曰 저화라 너희는 문 허
진 무덤 고 하니 그 우에 항하는 자가 아지 못하는 나라 하더라 ○ 曰 하나
법스가 되 담 여 골 으 되 선성님 이 말이 또 혼우리를 유흔하다 하니 못 골
으 샤 되 저화라 니 희 법스야 너 희 눈지기 어려온 짐으로 써사름의 배 맛
기고 즈 괴 는 혼손가락으로 도문지지 아니 하니 는 저화라 니 희 야 너 희
는 선지의 무덤을 세우 되 너 희 조상은 죽였 스 니 는 희 이 고 치간증 하
고 조상호 바를 합의 하니 조상은 죽이고 너 희 는 그 무덤을 세우 는 나
曰 하로 하는 님의 지 혜 예 닐 너 스 되 내 선 지 와 몸데 조 를 더 의 개 보 내 면
혹죽이 며 혹 군 박 하리 나 포 창 세 씨 옹 으 로 흐 르 바 선 지 이 피 가 다 이 제
터에 도 라 온 터 아 빌 의 피 로 브 터 사 카 랴 성 던 단 스 이 에 망 흔 피 서 지
니 를 지 라 내 실 노 너 의 개 닐 으 노 니 그 죄 를 반 드 시 이 세 터 에 자 지 리 라
트 제 화 라 니 희 법 스 아 너 희 가 지 식 의 열 쇠 를 빼 앗 스 스 로 드 러 오 지

안코 또 드려 오려 헛는 자를 막는다 헛더라 ○ 말할 때에 선비와 바리
서인이 심히 위워낙여 여러 솟흐로 충동 헛여 등티 헛여 그 입에 나오는
말에 헛가지를 잡으려 헛더라

누가 복음에 십이 장

폐에 사롭수 만이 모여서로 끌으니 예수 ─ 예조의 계급으 샤 되 바리
인의 누룩을 삼가 헛라 곳거 죠션 이니라 = 감춘 거술나타 내지 아니며
은 밀호거술 아지 아님이 업느니 = 고로 너희 어두온 터셔 말호거술장,
촛불은 터셔 듯고 너희 밀실에서 귀에 말호거술장 촛점우 애서 전 헛느
니라 = 내의 벗들 아너의 게닐으 노니 몸을 죽인 후에는 달니 홀바업순
쟈를 무서워 말나 = 내 너희 게 맛 당히 무서워 홀바를 보이리니 곳속인
후에 권세잇서 너희를 디옥에 더지느니를 무서워 헛라 = 총서 다소마
리 예돈득푼으로 사지 안느니 그러나 하느님의 암희셔 그 헛나를 두고 혼

낫지 아니 흐 ♪ 너희 머리털도 다 수가 있느니고 무서워 말나 너희
가수 다 혼 춤시 보 담귀 흐니라 ^ 내 너희께 님 으 노니 사람의 암희서나
를아 눈자 눈인자 가하는 님의 련스 암희서 또 혼알고 ^ 사람의 암희서
나를비반 흐는 자 눈하는 님의 련스 암희서 또 혼비반 흐리라 + 말노 써
인조를 치는 자 눈가히면 흐되 오직 성령을 춤남 흐는 자 눈가히면 치못
흐리라 + 사람이 너희를 신을 교회당파 판장파 권세 있는 자의 암희니
를적에 엊지 써 말영 흐여 무어스로 써 말흘고 남려 치말나 + 그 빼 예성
령이 너희 말흘마를 그르치리라 흐더라 ○ + ^ 몇사름에 흐나이 꿀으 터
선성님 내의 동성을 명호에 날노더 브러 산업을 논호개 흐쇼서 흐니 +
꿀으 샤티 뉘가 나드려 너희 중에 송스를 드르며 산업 논호는 자를 삼으
라 흐더나 흐고 + ^ 이에 뭇사람의 계설으 샤티 삼가 모든 탐심을 금흐라
사름의 성명이 그 가잔 낙 흐트잇지 아니 흐니라 흐고 + ^ 이에 비스둘

베프 러글으 샤덕 혼부자 의 뱃회 소출 이 풍성 흐매 17 스스로 성각 흐여
 굴으 던 내 이 곡식 간직 홀곳이 암스니 엇지 흐리요 흐고 18 또 굴으 던 반
 드시 이 둘 흐여 곡간 헐고 쁜거술 세워 써모든 곡식과 물건을 간직 흐리
 라하고 19 이에 스스로 굴으 던 내 물건이 만하여 러히 쓸거술 싸앗스니
 편이 쉬이 머음식 흐고 놀니라하고 20 오직 하느 님이 굴으 샤덕 미련 혼
 자야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달나 혼죽 예비 혼바가 뉘게로 도라 가겟느니
21 저 물을 제 몸의 싸앗스나 하느 님의 암회부자 아닌자도 쇠호이 22 흐
 니라하고 ○ 23 이에 데노의 계굴으 샤덕 내 너의 계닐 24 노니 살매 무엇
 스로 써먹으며 몸에 무엇스로 써님을 고념려 치말나 25 살 미량식 보담
 귀하고 몸이의 복보 담귀하니라 26 아죠를 성각 흐라심으지도 안코 거
 두지도 안코 창도 업고 곡식도 업서도 하느 님이 치느니 너희 가서 보담
 얼마나 귀하고 27 네 회뉘 능히 넘려로 써크에 혼자를 더 28 랴 29 저

극히 적은 거슬로 하려 능치 못한 거든 엇지 그 늘은 거슬려 허락 ^을나
리 췄술성 각 ^을라 업더 케자 ^를며 괴롭지도 안고 방적도 아니 ^을여도 내
너희 ^을게닐 ^을노니 솔노몬의 영화국 ^을홀때에 그 옷시이 ^을흔 췄만 ^을지못 ^을하
니라 ^을너희 적게 ^을잇는 자야들 애풀은 ^을오늘은 ^을잇다가 ^을리 일은 ^을화로에 더
지는 ^을니하는 님의 ^을숨임이 이 ^을거 ^을눌 ^을흐물며 ^을너희 ^을나 ^을너희 업지 ^을먹으며
엇지마 ^을심을 구치 말고 또 ^을꽤려 치 말 ^을나 ^을이는 다 ^을외방 ^을사 ^을름의 구호는 ^을배
I ^을라 ^을너희 아 ^을밤이 ^을너희 이 ^을거 ^을슬 ^을씀을 아 ^을느니 ^을오직 ^을하 ^을는 님의 ^을나라 ^을를 구
흔 ^을죽이 ^을거 ^을손 ^을너희 ^을게 더 ^을하 ^을느니라 ^을쇼 ^을조의 무리야 ^을무 ^을셔워 말 ^을나 ^을너희 ^을던
부나 ^을라 ^을으로 써 ^을너희 ^을를 ^을중을 ^을즐 ^을거 ^을하시 ^을느니라 ^을잇는 ^을거 ^을슬 ^을푸 ^을라 ^을구제 ^을하
고 ^을쳐 ^을지 ^을지 ^을안 ^을는 주면이 ^을와 ^을다 ^을지 ^을안 ^을는 보비 ^을를 ^을하 ^을눈에 예비 ^을하 ^을라 ^을도 ^을적이
갓 ^을가 ^을히 ^을못 ^을하고 ^을좀 ^을이 ^을먹 ^을지 ^을안 ^을는 곳이 ^을라 ^을보비 ^을잇는 바에 ^을모 ^을음 ^을이 ^을또 ^을호 ^을잇
느니라 ○ ^(三五) ^을너희 ^을썩 ^을를 ^을목 ^을교 ^을등불을 ^을혀 ^을교 ^을그 ^을쥬 ^을인 ^을이 ^을잔 ^을처 ^을집 ^을으로 ^을도 ^을라

움을 기드리는 자고 치호예니
 러그 셈을 보면 이종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내실 노녀의 계닐으노
 니 쥬인이 스스로 뼈를 묵고
 대로 자리에 앉치고 암희서 셈기리라
 흑이 경에니
 러그 쪽을 보면 이종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三 만약 집 쥬인이 도적이 어는 때에
 니를 줄 알았더면 써여 그 집에
 구멍 뚜루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알바니라 ^四 고로 맛당히 등터
 흑여 뜻 아니 흠때에 인조니
 름을 인하라 ^五 ○ 피들이 골으 터이 비스
 틀 베풀문우리 틀위 흠이니
 잇가뭇사람을 위 흠이니
 잇가 ^六 쥬골으 샤
 터뉘가 멏업고 총명 흔집스 되여
 쥬인이 맛긴 바로 써그 집을 쳐지하여
 째로 량식을 논흘자 ^七 나 ^八 쥬인이
 올때에 그이 고치 힝 흠을 보고 이종
 이복이 있다 ^九 하리니 ^十 내실 노녀의
 계닐으노니 쥬인이 장초 그 온산업
 을 맛기리라 ^{十一} 만약 그 죽이
 움에 널으 터 쥬인이 더티 오리라
 하여 모

둔 비복을 치며 음식 흐고 또 취호즉 ●六 쫓 흐지 아닌 날파아지 못 흠때에
쥬인이니 르려 쑨어 올치아 닌쟈와 그 흔되 드리라 ●七 종이 쥬인의 뜻술
알고 예비 치아니며 그 뜻술 쪽지 안는쟈는 믹를 만이 밧을 거시요 ●八 아
지 못 흐고 믹싼 일을 짓는쟈는 믹를 밧음이 적으리라므로 만이 준자는
취호이 만코 만이 부탁 혼자는 더 달남이니라 ○ ●九 내가 와불 노씨짜에
더 저 만약 불이 임의 브터스면 내무어 술흐고 저흐랴 ●十 내가 밧을 밥데
례를 밟지 못 흐 옛소니 엇지 꼬고 치아니랴 ●一一 너희 뜻에는 내가 와서화
평을 세상에 베품을 삼는냐 내내의 계닐 ●一二 노니 그려 치아니니라 오직
논호이 계호이니라 ●一三 이제 후에 혼집의 다솟사름이 논호일때에 서히
둘과 흐고 둘이 셋과 흐며 ●一四 아방이 아들파 논희우고 둘이 어암파 논희
우며 식어 맘이 머느리와 논희우고 머느리가 식어 암파 논희우리라 흐
고 ○ ●一五 이에 웃사름의 계닐은 샤더구름이 서으로 브터닐 물보고 너희

말이비오리라 헛면파연 그려하고 바름이 남으로 불물 보고 너희 말
 이더우리라 훈죽도 훈그려 헛느니 포 거짓선을 헛느쟈야 너희린디의
 괴상은 구별홀줄 알고 엊지이 때구별홀줄은 아지못 헛느냐 포 또 엊지
 올흔바를스스로판단치못 헛느나 포 너희를 송스 헛느쟈로 흠색판장
 의제나아갈적에 길에셔 맛당이 모음을 다 헛여 노음을 엊어 너를 형판
 의제쓰을면 형관이 너를 아역의제붓쳐 옥에 가돔을 면 헛라 포 내네
 널으노니마조막은호말이라도 갑지못 헛면 결단코 더 괴나지못 헛리
 라

누가복음데십삼장

그때에사람이 피나토가가니느사람의 피로써더제물에석쇠을고 헛
 니 二 예수 1 터답히여 굽으샤터너희뜻에이가니느사람이이곳치해
 를밧은거시못가니느사람보담더죄가잇는냐 三 내너의제 널으노니

아 나라 너희 기치아니면 또 혼다 이 콧치 망흐리라 ○ 또 시노암의 탑
 이문어 져 눌녀 죽은 자 | 열여덟사람이 너희 솟에 뭇예루살임에 거호
 사롭보담더죄를 젠느냐 ^도 내너의 계닐으 노니아 나라 너희 기치아
 니면 또 혼다 이 콧치 망흐리라 ^도 고 ^도 이에 비스로 써 말흐 되 무화파를
 포도원에 심은 자 | 잊서와 셔 열미를 구 ^도 가 엊지 못 ^도 흐고 ^도 농인의
 게골으 터내 삼년을 와 셔 열미를 구 ^도 여 엊지 못 ^도 흐 옛스니 쪽을 거시니
 엊지짜만 잡으리요 ^도 흐니 ^도 터 담흐여 골으 터 쥬인님 금년에 다시 용납
 흐여 내 두루 푸고 거룸을 내여 ^도 흐 열미 및 치면 ^도 거니와 만일 그려 치아
 니면 짹으 쇼서 흐리라 ○ + 사밧일에 예수 | 혼회당에 그르치는 터 ^도
 혼녀인이 귀신의 탈노심 팔년에 허리 굽어 져 능히 폐지 못 ^도 흐니 ^도 예수
 보시고 ^도 너인을 불너 골으 샤터 년인아 가히 네 병을 노으라 ^도 흐고 ^도 이
 예손으로 안찰 ^도 흐니 ^도 너인이 즉시 펴고 하느님을 영화 ^도 더라 ^도 회당 ^도

지호자 | 예수사밧일에 병곳침을 성내여 뭇사람의 깨널네 굽으 닥 맛
당이 일하는거시 옛식니 그날에 와서 곳칠거시 어늘사밧일에 맛당치
아니타 ^{+ 五} 흐니 쥬 | 터답 ^{+ 五} 여 굽으 샤 터거조션을 흐는자야 너희사밧
일에 뉘가소와나귀를 구유에 셔 푸러잇 쇠 러물먹이지 아니랴 ^{+ 五} 흐 물
며 이녀인은 암라함의 조손이사탄의 제미인제십팔년인터사밧일이
라고 맛당이 그미인거슬풀지아니랴 ^{+ 七} 예수 | 이들말해 모둔터 떡
흐는자 | 붓그러워 흐니뭇사름이 그힘스광명홈을 보고 즐거워 흐더
라 ○ ^{+ 八} 예수 | 굽으 샤 터하는님의나라이 무엇꼬 흐여도 무엇스로 써
비기리요 ^{+ 九} 계조祚조 흐니사름이 취흐여 동산에 심은죽자르셔나
무를일위매나논서가 그가지애 머므느나라하고 ^{+ 一} 또 굽으 샤 터엇자
써하느님의나라를비기리요 ^{+ 二} 누룩을호내인이 가져서 말가루에 석
거고로이발홍굿다 ^{+ 三} 흐더라 ○ ^{+ 三} 예수 | 성파촌을지나 그루치고 예수

활립을 향하여 힘하더니 그 혹이 굽으니 죠야 구원되었는자 । 져으니 앗
가해니 그 굽으샤 터 힘을 다하여 좁은문으로 드러가라 내너의 계설을
노니 드러가기를 구하여 엇지 못할자 । 만으리라 그 집 쥬인이 널어문
을 닻으매 너희 밟고 서서 문을 두드려 굽으니 쥬야 쥬야 문을 열으 쇼서
훈족더니 담하여 굽으니 너희 가어터로 오는지 내아지 못하겠다 하면
너희 굽으니 우리 쥬의 암희서 음식하고 쥬도 혼우리 거리에서 그를
쳤다 훈족은 더 굽으니 내 말하노니 너희 가어터로 오는지 아지 못하겠
다 너희 불의 흙는자는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 암라 함파이
삭파야 곱파모둔 선지를 하느님의 나라에서 보고 너희는 밟고 뜻거나
죽시의 곡절치호리라 그동서 남북으로 브러사름이 나르러 하느님의
나라에 안조되 그후에 잊는자가 혹 몬져가 되고 몬져잇는자는 혹 후가
되느 나라 ○ 당시에 멋바리시인이 나르러 굽으니 여괴를 떠나 가라

해듯이 너를 죽이고 져 혔다 ^으니 ^으길 으샤 더 가셔 더여 호의 게고 ^으하라
오늘파리일에 내귀신을 쪘치며 병을 곳치리니 데삼일에 내일울지라
비록 그려나 ^으오늘파리일과 모레는 내맛당이 힝 ^으하리라 선지가 예루
살임외예 능히 망혼자 | 업 ^으니라 ^으예루살임아 예루살임아 네선지
를죽이며 보냄을 밟들어 온쟈를 돌노씨치는 ^나내너희 ^으희들모호고
져 ^하기들암 ^드들이 석기를 나리 아래 모홍 ^으치 혼제가 멧째 ^나오직너희
원치아니 ^하니 ^드보라너희집이 뷔이리라 내너의 개실노날 ^으노니 쥬
의 일홍을 부탁 ^하여온쟈가 찬미홍을 말 ^하기전에 눈너희나를보지못
^하리라 ^하더라

누가복음데십 ^으장

못총사 ^았일에 예수 | 바리시인 ^으지 ^하는쟈의집에 드러가 밥먹으려
하는터 ^못사 ^았이 엿보는지라 | ^하나고 창중알는쟈 | 그 암희잇 ^으스니

예수 | 범스와 바리석인의 제날 너 굽으 샤티사 뱃일에 병을 곳침이
합당 했니 | 웃사름이 잠자고 계늘 예수 | 그사름을 꽂쳐보내고
웃사름의 제날 너 굽으 샤티너 회소와 나귀가 우물에 써지면 뉘던 지
즉시 건져 내자 아니 랴 했니 사 ⁶사름이 능히 더답지 못 했더라 ○ 7 예수
청호여온사람들이 슈좌탁Hom을 보고 8 비스를 베프러 굽으 샤티사름
이너희를 청호여 혼연에 나아가 되슈석에 안자 말나져 어호건더 너보
담눕흔자 | 잊서 청호을 보면 9 너와 더를 청호사름이나아와 네제날
으더자리를 이사름을 주라 했면붓그러워 말석으로나아가리라 10 오
직 청호때에 가서 말석에 안진죽너를 청호자 | 나아와 굽으 더친고는
온나안조라 했면곳좌석에 네가영화 | 잊수리라 11 므로눕흔데 희는
쟈는 놋개하고는 존재 희는자는 놋개하는 나라하고 ○ 12 또 청호자의
제길은사터네명심파 흑저녁을 터홀때에 벗과 동성파 천체파 부자근

쳐를 청치 말나 저어 흥건 터더 너를 청 헤여 갑 흠을 밟으리라 ^{+ 3} 오작열
 셔을 비설 허고 가난 흔자와 병신과 앙존방이와 쇼경을 청 흔죽 배복이
 잇출거시더는 네게 갑 흠이 업고 ^{+ 4} 올 흔사름다시 널째에 네 갑 흠을 엊
 으리라 ^{+ 5} 니 ○ ^{+ 5} 흠썩 안 젖던 차름이 듯고 ^{+ 6} 으 터하느 님의 나락에 떡
 는 차 | 복이라 ^{+ 7} 니 ^{+ 8} 예 수 | ^{+ 9} 글 으 샤 터 후 이 대연을 비설 허고 청 흔바
 + 만 흔디 ^{+ 10} 찬 치 떼에 종을 보내여 청 흔자의 게고 헤여 ^{+ 11} 글 으 터오 쇼 셔
 빅 물을 갖초 왔느 이다 ^{+ 12} 니 ^{+ 13} 뭇사름이 흔 걸긋 치스랑 헤 되 ^{+ 14} 나 는 말
 이 내 밧술사서 부득 불가셔 보겟 소니 청 컨 터내의 소랑을 준 ^{+ 15} 쇼 셔 헤
 고 ^{+ 16} 또 ^{+ 17} 흔 말이 내 쇼 다 솟 쌍을 살시 매 카서 시 험 ^{+ 18} 헷 소니 청 컨 텁
 노랑을 준 ^{+ 19} 흔 쇼 셔 헤 ^{+ 20} 또 ^{+ 21} 흔 말이 내 쳐를 채 ^{+ 22} 헤여 가지 못 ^{+ 23} 헷 타
 흔 매종이 도라와 쥬인 죽고 흔덕 ^{+ 24} 쥬인 이로 흔여 그 종을 명 ^{+ 25} 헤여 ^{+ 26} 글 으
 터 촉 흔 성중 거리에 와 골목에 가서 가난 흔자와 병신과 쇼경과 앙존방

이 둘 일도 허여 오라 헤니 는 종이 글 으니 쥬인 남명 으로 허여서도 오히려
혀 늄은 자리가 있는 이다 헤니 는 쥬인이 그 종의 글 으니 길과 울타리
에 나아 가사 를을 위 여드려다가 내집 자리에 치우라 헤느니라 는 내너
의 계널 으 노니 묻져 청호바사 를은 헤나도 내잔처를 맛본자 니 업스리
라 헤더라 ○ 는 여 러사 를이 흠색 힝 헤니 예수 니 도라 보고 글 으 샤 터 는
내게 나아와 그부모와 쳐 즈와 동성과 누의와 즈 괴목 숨위워 안는자는
시러 곰내의 데 즈 되지 못 헤고 는 십 즈들을 지고나를 쪽지 안는자도
또 훈시러 곰내의 데 즈 되지 못 헤느니라 는 너 너희 뉘가 탑을 세우고 쳐
흘진된 몬져 안져 그부비 를 교계 치 안코 죽히 써 일 으 라 는 져 어 헤건 터
터 만 닥고 일 으 지 못 헤면 보는자 니 다우셔 글 으니 이사 를이 짓기를
시작 헤고 능히 일우지 못 훈다 헤리라 는 어느 국왕이나 악가 태로 왕을
마조 쳐 짜 흠 을 면 묻져 안져 료량 치 안코 능히 일만으로 써더 오는자 일

만을 터덕 호 래 ^三 그 러 치 아 니 면 내 델 이 오 히 려 머 렛 실 적 에 스 자 를 보
내 여 화 친 을 구 호 리 니 ^三 이 콧 치 너 희 잇 는 바 를 이 별 치 안 는 쟈 는 시 러
곰 내 의 데 조 ^一 되 지 못 호 리 라 ^三 대 개 소 곰 은 도 훈 거 신 터 그 맛 술 닐 흐
면 엉 지 써 짜 게 호 래 ^三 빛 과 거 름 에 도 합 당 치 아 니 호 여 오 직 빛 과 뿌 리
느니 라 귀 잇 스 면 드 르 라 호 더 라

누 가 복 음 데 십 오 장

모 든 세 관 파 죄 인 이 나 아 와 듯 는 터 ^二 바 리 석 인 과 선 비 시 비 호 여 굴 으
더 이 사 름 이 죄 인 을 용 납 호 여 흠 씨 밥 먹 는 다 호 니 ○ ^三 예 수 ^一 비 스 를
베 프 러 굴 으 샤 ^四 너 희 어 는 사 름 이 일 빅 마 리 양 에 서 그 호 나 톤 닐 흐
면 아 직 아 흔 아 흠 을 들 에 두 고 그 닐 흔 거 술 쌓 라 맛 나 기 에 니 르 지 아 니
랴 ^五 맛 난 즉 즐 거 워 억 기 에 노 코 도 라 와 ^六 그 벗 과 근 처 를 모 오 고 굴 으
터 내 날 흔 바 양 을 맛 나 옛 스 니 나 로 흠 씨 즐 거 워 호 자 호 리 라 ^七 내 너 의

제 널 으 노니 이 곳 치죄인 에 헤 나 이 회 카 혼 즉 하늘에 서 즐거워 헤 기 가
회 카 쓰 지 아 날 아 흔 아 흔 올 흔 사 름 보 담 승 헤 리 라 ○ ^ 어 는 부 인 이 은
돈 열 남 에 서 그 헤 나 를 널 헤 면 불 을 혀 며 집 을 쓰 러 조 세 헤 쟈 자 맛 나 기
에 니 르 지 아 니 라 _九 맛 날 즉 그 벗 과 균 처 를 모 히 고 굴 으 터 내 널 헛 든 은
돈 을 엇 엇 스 니 날 노 흄 씨 즐 거 워 헤 자 헤 리 라 ₊ 내 너 의 제 널 으 노니 죄
인 에 헤 나 이 회 카 혼 즉 하 는 님 의 스 자 압 회 셔 즐 거 음 이 뜨 혼 그 러 헤 라
흐 고 ○ ₊ 뜨 굴 으 샤 터 혼 사 름 이 두 아 들 이 잇 는 터 ₊₌ 그 마 조 막 아 아 밤
씨 굴 으 터 청 전 된 아 바 니 산 업 으로 써 내 게 분 것 헤 여 주 쇼 셔 헤 매 이 에
산 업 을 논 하 주 니 ₊₌ 몇 날 이 못 헤 여 마 조 막 아 들 이 다 가 지고 먼 터 로 널
어 거 괴 셔 방 당 헤 여 그 산 업 을 헤 비 헤 여 다 모 전 헤 고 ₊₄ 후에 그 싸 이 크
게 괴 황 헤 여 심 히 군 돈 헤 매 ₊₅ 이에 그 곳 혼 사 름 의 계 우 접 헤 니 빛 회 보
내 여 뜻 술 치 는 터 ₊₆ 뜻 회 먹 는 콩 썩 지로 뼈 빙 를 치 우 고 져 헤 되 먹 이 는

사람이 업스니 ^{+ 7} 비야 ^흐로 뉘우쳐 굽으 ^더 내의 아바니는 죽군이 얼마
로 되 그 량식이 늄은 거시잇거 늘나는 여괴서 주려 망 ^흐여 가니 ^{+ 8} 내니
려아바니게도라 가말 ^흐기풀내죄를 하느님과 아바니찌 엇 ^엇스니 ^{+ 9}
다시 눈아들이 라닐 ^흐름을 감당치 못 ^흐겟스니 나를 죽군과 죽치녁이
쇼서 ^흐겟다 ^흐고 ^흐이에 널어 그 아밤의 게가는 터 오히려 머려셔 그 아
밤이 보고 어옛비 ^녀예 ^드라가 그목을 안고 암 ^맞초니 ^흐아들이 굽으 ^더
아바니아죄를 하느님과 아바니색 엇 ^엇스니 다시 눈아들이 라 ^훔을 감
당치 못 ^흐겟다 ^흐니 ^흐아바님이 종을 명 ^흐여 굽으 ^더 아름다온 웃술속
히 ^히히 ^히여 ^님히며 가락지를 그손가락에 씨우며 발에 신을 신기고 ^흐
살진 송아지를 씌으려다가 잡고 우리 먹으며 놀자 ^훔은 ^흐이 아들은 죽
엇다 다시 살며 날 헛다 다시 맛 ^낫다 ^흐고 이에 즐거워 놀더니 ^흐못 ^흐참 맛
아들이 밧 ^흐로 셔도 라오다가 집에 갓가와 풍악과 춤춤을 듯고 ^흐흔종

을 불너 그 연고를 무른 터 二七 굴으 터 맛 쥬인 님의 동성이 와서로 쥬인 님
이 살진 송아지를 잡음은 그 병업시었음이니이다 二八 허니 二九 맛 아들이로
흐여 즐거드러 가지 아니매 아밤이나와 권 二九 터답 二九 허여 굴으 터 내
아바님을 섬긴제여 러히에 명을 어괴지 아니 三一 허 옛서도 아바니 三一 허 나 양
의식기를 주워내의 벗스로 흠뻑 놀나 흠이 업더니 三一 이 아들은 계집질
노써 아바니 산업을 다먹엇는 터 이에니 三一 르 매위 三一 허여 살진 송아지를 잡
았는니 三一 허니 三一 아밤이 굴으 터 아들아 놀나와 흠뻑 三一 허고 내의 잇는
바가다네게 브터스 三一 터 三一 너의 동성은 죽었다 다시 살고 날혔다 다시 맛
낫기로 우리 맞당히 놀며 즐거워 훈다 三一 허더라

누가복음데십륙장

예수 | 데즈의게 골으샤 터 혼부자잇스니 집스호 눈쟈가 산업을 허비
함으로써 후이 쥬인의게 고호 터 二 이에 불너 굴으 터내듯는 바가네무

숨일이나 네보던 일을 쟁내고 다시는 일을 보지 말나 乎니^三 집스^一 뜻
에 굴으 터 쥬언이 내일 보던 직분을 앗느냐 엇지 乎리요 농스를 旱려 乎
나 힘이 업고 동량을 旱려 乎되 봇그려을 지라^四 내 홀바를 아느니 일을
보다가 내 천후에 사몸으로 나를 그 집에 터접케 乎리라 旱고^五 이에 쥬
인의 캐 빗진쟈를 旱나식 불너다가 그 旱나의 캐 굴으 터네내의 쥬인의
캐 진거시 얼마나^六 굴으 터 기름일 빅 말이라 旱니 굴으 터네문셔를 가
져다가 즉시 안져오십 말이라 쓰라 旱고^七 또 다른사람의 캐 굴으 터네
진거시 얼마나 굴으 터 밀일 빅 셈이라 旱니 문셔를 가져다가 여든 셈이
라쓰라 旱되^八 쥬언이 이불의 훈집스를 칭홈은 그 힝홈이 공교홈이 라
대개이 채상사롬이 그 몸을 위 旱여도 모홈은 광명훈사롬보 담더욱 공
교 旱니라^九 내네의 캐 널으 노니불의 의저물노 써 벗술사피여 업서진
후에 시러 곰영원의 집에 터접케 旱리라^十 적은 터 충성 旱는쟈는 큰 터

도 충성 헌고 적은 터 불의 헌는 자는 큰 터 도 죠 혼불의 헌는 나라 만 약
너희 불의 의 저물에 충성 치 아니면 뉘가 촘된 것스로 써 너희 게 부탁 헌
며 만 약 너희 사 름의 물에 충성 치 아니면 뉘가 그 물 노 써 너희 를 주
라 + 흔 종이 능히 두 쥬인을 섬기 지 못 흠은 흑이 를 뛰워 헌며 더 둘 소랑
헌고 혹 이에 의탁 헌며 더 둘 경히 넉 임이니 너희 능히 하느님 과 저물을
섬기 지 못 헌느니라 헌더라 ○ 바리석인은 저물을 빌 와 헌는 교로 이
말을 듯고 비웃느니 예주 1글으 사 되 너희는 사 름의 암희 쳐스스로
울음을 칭 헌되 오직 너희 빙 음을 하느님이 아느니 대개 사 름이 놓히는
바는 하느님의 게는 뭐워 너이 눈거지 라 + 를 법과 선지 는 요안느의 게
니르 렷스니 일노 브러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전 헌여 사 름마다 힘써나
아 가느니 + 런디 업서 짐이 를 법호회 폐 흠보 담더 쉬오 나라 + 르 그
쳐를 브리고 달니 췌 헌는 자도 음란을 힝 흠이요 브린 바를 췌 헌는 자도

또 혼음란을 헹 흠이라 ○ + 九 효부자 가잇서 조주 웃파 가는 뵈를 남고 날
 마다 번화이 연락하고 ○ 또 온몸에 현티 난류 걸나사로 라효자 물사를
 이부자의 문방과 두어 ○ 부자의 상에서 떠러지 진거스로 써먹고 져 헤
 더니 개가 와서 그 현티를 할 치매 ○ 몇 헴걸인이 죽으니 련스 ○ 봇들어
 암라함의 품에 두고 부자 | 또 혼죽어 장스 헤 매 ○ 디우고 양가온티셔
 눈을 들어 멀니 암라함의 품에 나사로 잇숨을 보고 ○ 불니금으 터내의
 조상 암라함은 나를 어엽비녀여 나사로를 보내여 손꽃회 물을 찌어내
 외혁를 서늘 헤 쇼셔 이불갯지가온티셔고 양이심 헤 니이다 헤 니
 ○ 암라함이 굴으 터으 헤야 계상에 잇슬때 에너는 도흔거습방았고 나
 사로는 못된 거슬방음을 생각 헤 라이제 더는 안위를 엊고 너는 고양을
 뱗느니라 ○ 다못이뿐아니라 우리와 너스이에 큰웅덩이로 흐녕 헤 엿
 슨니여괴로 네게 건너가고 저 헤여도 능치못 헤고 거괴로 우리게 오고

져 하여도 또 혼 능 치 못 하겠다. 하니 ^는 굴 으 터 그 련 죽 조상의 계 구 ^는 노
 니 나 사로를 보내여 내아 바니 집에 가 ^는 내 형 데 다 숏 사룸이 잇 소니 더
 의 계 간 종 하여 또 혼 이고 상 밟는 곳에 니 르 기 롤 면 케 하 쇼 셔 하니 ^는 암
 래 함 이 굴 으 터 더 모 쇼 와 선지 잇 소니 드 르 리 라 ^는 터 담 하여 굴 으 터 암
 라 함 조 상 아 그 렛 치 안 소 이다 만 약 죽 음 으로 나아 가는 자 | 잇 소 면 더
 회 카 하 리 이 다 ^는 암 라 함 이 굴 으 터 모 쇼 와 선지 를 둇 지 아니 면 꽃
 죽 음 으로 다시 니 는 자 | 잇 세 도 그 또 혼 잇 지 아니 리 라 하 더 라

누가 복 음 데 십 칠 장

예 수 | 데 ^는 조 의 계 굴 으 샤 뒤 사 름 을 빠 지 채 하 는 일 이 능 허 입 지 아 니 되
 다 못 빠 지 채 하 는 자 | 저 화 니 라 ^는 그 적 은 ^는 회에 하 나 를 빠 지 채 흘 진
 된 출 하 리 콘 미 돌 을 그 목에 달 고 바다에 더 짐 이 니 ^는 스 스로 삼 가 ^는 라
 네 동 성 이 죄 를 범 하 면 칙 망 하여 회 카 흔 죽 샤 하 고 ^는 만 약 하 로 널 곱 번

죄를 네게 염고 닐곱번 네게 도라와 금으 터내 회기 희였다 희 면 반드시
 샤호라 희니 ○ = 몸데조 | 쥬색 금으 터우리의 맛음을 더 희게 희 쇼서
六
 주 | 굽으 샤 터 만약 너 회계조 종조 혼알 만치 맛음이 잇소 면 곳이 쟁
 나무를 명호여 썰회를 빼여 바다에 심으라 희여도 죽 혼드물지니 ○ 너
 회 중에 어느 사 름이 종이 잇서 혹 밧갈며 즘성 치다 가 밧 희로도 라오면
 명호여 자리에 안즈라 희랴 ^ 엇지네 져녁을 예비 희고 떡률 묵고 나를
 섬기다가 내 음식 다 먹은 후에 네 먹으라 널으 지안 코 ^ 종이 명을 조차
 흥호면 샤례호랴 + 이곳 치 너 회명 혼바를 흥호면 죠 혼스스로 널으 터
 무 악 혼종이 맛당이 흥호바를 흥호였다 희리라 희더라 ○ ○ + - 몇 총예수
 | 예루살임에 갈 때에 사마랴와 가나부를 지나다가 + = 혼촌에 드러가
 니 벽남 풍알 눈자열사 름이 맛나 + = 멀니셔셔 소 림을 쳐 금으 터 선성님
 예수는 우리를 어엿비 넉이 쇼서 희니 + 예수 + 보고 금으 샤 터 가셔제

스역 보이라 호매갈때에 곳간정호는지라 ¹⁵ 그 중에 혼사름이나 음을
보고 도라와 큰소리로 하느님을 영화하고 ¹⁶ 예수의 발아래 업여 쟈
례하니 이사마랴사름이라 ¹⁷ 예수— 터답호여 굽으샤되 열사름이 정
치아니 호옛느냐고 아홉은 어뢰잇느냐 ¹⁸ 이외방사름외에는 도라와
하느님을 영화하는자— 업느냐하고 ¹⁹ 이에 굽으샤되니 러가라네의
잇는거시너를 구원호였다호더라 ○ ²⁰ 바리석인이 하느님의 나라이
어느때에 니름을 막론뒤 예수— 터답호여 굽으샤되 하느님의 나라이
그나타나게니 르지아닐지니 ²¹ 말호지못흘거시여 괴잇다더 괴잇다
호되하는님의나라이너희속에잇는나라하고 ²² 또예전의제님으샤
터째니르러너희인조의호날을보고져호나시러곰보지못호리라 ²³
사름이너의제고호되여괴잇다더괴잇다호되나아가지말고 죽지도
말나 ²⁴ 하늘에번지여괴셔번뜻더괴셔빗남곳치인조니를날이도호

이러호리라^{二五} 다못맛당히몬져심히고상^{二六} 허교브림을이제상에보았
소니^{二七} 노아의때^一 콧치인^二 인조^三 의날이^四 또^五 혼그^六 러호리라^七 사람^八 이음식과
혼취^九 혼다가^{一〇} 노아^{一一} 빵에^{一二} 드는^{一三} 날에^{一四} 멋처^{一五} 홍슈니^{一六} 러다^{一七} 망^{一八} 고^{一九} 또^{二〇} 롯의
때^{二一} 콧사^{二二} 름이^{二三} 음식^{二四} 혼며^{二五} 장^{二六} 손^{二七} 혼며^{二八} 곡식^{二九} 심으^{三〇} 며^{三一} 집짓다가^{三二} 가^{三三} 다^{三四} 못^{三五} 롯이
조동^{三六} 의나^{三七} 오는^{三八} 날에^{三九} 하늘^{三〇} 노불^{三一} 파류^{三二} 황이^{三三} 려다^{三四} 망^{三五} 혼^{三六} 옛^{三七} 소니^{三八} 인조^{三九} 나
라^{三〇} 날날^{三一} 이^{三二} 또^{三三} 혼이^{三四} 콧^{三五} 혼리라^{三六} 그^{三七} 날에^{三八} 집^{三九} 우에^{三〇} 잊^{三一} 눈^{三二} 자^{三三} 그^{三四} 괴^{三五} 명^{三六} 이^{三七} 집^{三八}에^{三九} 잊
서^{三〇} 도^{三一} 는^{三二} 려^{三三} 와^{三四} 취^{三五} 치^{三六} 말^{三七} 며^{三八} 밧^{三九} 희^{三〇} 잊^{三一} 는^{三二} 자^{三三} 도^{三4} 라^{三5} 오³⁶ 지³⁷ 말³⁸ 고³⁹ 롯³⁰ 의³¹ 처³² 를³³ 성³⁴ 각³⁵ 혼
라³⁶ 그³⁷ 성³⁸ 명³⁹ 을³⁰ 보³¹ 존³² 코³³ 저³⁴ 혼³⁵ 는³⁶ 자³⁷ 는³⁸ 도³⁹ 로³⁰
여³¹ 보³² 존³³ 혼리라³⁴ 내³⁵ 너³⁶ 의³⁷ 계³⁸ 달³⁹ 으³⁰ 노³¹ 니³² 그³³ 밤³⁴에³⁵ 두³⁶ 사³⁷ 름³⁸ 이³⁹ 자³⁰ 리³¹ 를³² 흠³³ 쪽³⁴ 혼
눈³⁵ 터³⁶ 혼³⁷ 나는³⁸ 드³⁹ 려³⁰ 가³¹ 고³² 혼³³ 나는³⁴ 셋³⁵ 치³⁶ 며³⁷ 두³⁸ 녀³⁹ 인³⁰ 이³¹ 흠³² 쪽³³ 미³⁴ 갈³⁵ 적³⁶ 에³⁷ 혼³⁸ 나는³⁹ 드³⁰ 려³¹ 가³² 고³³
호³⁵ 나는³⁶ 셋³⁷ 치³⁸ 리³⁹ 라³⁰ 혼³¹ 니³² 물³³ 사³⁴ 름³⁵ 이³⁶ 무³⁷ 른³⁸ 굴³⁹ 으³⁰ 터³¹ 쥐³² 아³³ 어³⁴ 터³⁵ 잇³⁶ 스³⁷ 릿³⁸ 가³⁹

으 샤 터 죽 엄 이 잇 는 곳 에 소 로 깨 모 이 는 니 라 흐 더 라

누 가 복 음 데 십 팔 장

예 주 । 비 스 를 말 흐 여 사 류 이 늘 빌 기 를 깨 어 른 지 안 켜 흐 여 굴 으 샤 터
아 모 고 을 에 혼 관 장 이 하 는 님 을 두 려 위 흐 지 아 니 며 사 류 을 협 의 흐
지 안 는 터 ॥ 그 고 을 에 혼 파 부 잇 서 늘 나 아 와 셔 굴 으 터 청 전 된 내 외 원
을 원 슈 의 계 폐 주 쇼 셔 흐 되 ॥ 오 래 허 치 안 코 후 에 스 스 로 성 각 흐 여 굴
으 터 내 비 록 하 는 님 을 두 려 워 아 니 며 사 류 을 협 의 흐 지 아 니 나 ॥ 다 못
이 파 부 나 를 괴 롭 게 흐 니 내 그 원 을 폐 늘 와 셔 나 를 분 주 깨 흐 을 면 흐 리
라 흐 니 〔^六〕 쥬 골 으 샤 터 이 불 의 의 관 장 에 말 흐 는 바 를 드 르 라 ॥ 하 는 님
의 쎈 빅 성 이 밤 낫 빙 면 촘 아 엇 지 그 원 을 폐 지 아 니 랴 ॥ 내 너 의 계 닐 으
오 나 속 히 폐 리 라 다 못 언 드 니 른 러 및 음 을 계 상 에 보 랴 흐 더 라 ○^九 스
즈 로 올 혼 력 흐 고 사 류 을 멸 시 흐 는 자 를 예 주 । 비 스 로 말 흐 되 ॥ 두 사

둘 이 성현에 울 느비는 되 헌나는 바리식인 이요 헌나는 세판이니⁺¹ 바
 라서 안이 홀노셔셔비러굴으 되하는 님색감사호노나나는다른사람
 파코치토석흐며불의흐며음란을안코쓰이세판코치아님거시⁺² 내
 철얼에두번저게흐고므로잇는바로씨열에그흐나를드리느이다흐
 니⁺³ 세관이멀니셔서감히눈을드려하늘을우러러지못하고가슴을
 쳐굴으터하는님내죄잇는사롭을어엿비녁이쇼셔흐느니라⁺⁴ 배너
 의개길으노니이사롭이도라가더보답울음을청흐느니므로눕흔데
 희는자는자지고느진테흐는자는눕하지느나라호데라 ○⁺⁵ 혹이
 어린으히를드리고와예수의개문지기루구하는되데자 보고척망
 흐나⁺⁶ 예수 | 불녀와굴으샤되어린으히를용남흐여내게나아오게
 희고금치말나하는님의나라이이곳흐나라⁺⁷ 내실노너의개길으노
 니어린으히코치하는님의나라을빛지안는자는시러꼼드러가지못

흐는 나라 흐더라 ○ + ㄏ 혼관장이 무려 굳으니 선호선성님내 맛당히 엇
지호야 영성을 엊으리요 흐니 + ㄏ 예수 1 굳으샤티네 엊저찌나를 선라
칭흐는 나선호이는 오직 혼분이니 곳하는 님이라 二 계명은 네아는 바
내음란치 말며 살인말며도 저질말며 망명된 간증말며 너의 복모를
효경흐라 흐니 二 이거 손내어 려서 브러다 직희 엇느이다 三 예수 1 듯
고 굳으샤티 오히려 흐나이이 드러졌느니 잇는 바를다 푸라찌 가난을
건전죽보비가 장초하늘에 잇소리니 또와서 나를 쪽츠라 흐니 二 예수
고심히 근심홈은 큰부자 1 연필너라 二 예수 1 보고 굳으샤티 저물잇
눈자하는 님의 나라에나아 감이 어려오니라 二 약되바늘귀에나아감
이부자하는 님의 나라에나아 가는것보담오 히려 쉽다 흐니 二 듯 눈자
1 굳으니 그런죽뉘능히구원흐리잇가 二 굳으샤티사람이 능치못한
눈마를하는 님인죽능흐는 나라 二 피들이 굳으니 익리 일절을 보리고

주를 조창느이다 하니^{三九} 굴으샤 터내실 노너의 계닐으노니 사룸이 하
느님의 나라을 위 하여 집과 부모와 동성과 처조를 떠나면 면^{三+} 금제에 여
러곱을 엊고 리세에 영성을 엊지 못 하는 자 | 업 수니라 ○ 三 예수 | 업
득데즈를 드리고 굴으샤 터우리예루살임에 올나간즉 선지괴록 호바
인조를 그르친 말이 반드시 일우리니 三二 그 외방사롭의 계부처회를 하
며 릉모 하며 춤밧흐며 三三 첫적으로 치며 죽인즉 삼일후에 다시 널겠다
흐되 三四 데즈 | 씨 닷지 못 홈은 그 말이 은밀 하여 날온바를 아지 못 홈일
네라 ○ 三五 몇 촘예리코에 갖가을때에 훈쇼경이 길엽회안져 동량 하다
가 三六 허다흔사름지나감을 듯고 그연교를 무르니 三七 혹이 굴으 터나 살
잇예수 | 지나간다 하니^{三八} 쇼경이 불너굴으 터다빛의 후예예수는 나
를어 옛비녀이 쇼서 하니^{三九} 압회횡 하는자 | 칙망 하여 즘증 하라 하되
예더크게 불너굴으 터다빛의 후예는나를어 옛비녀이 쇼서 하니^{四+} 예

수 1 셔서 명호여 드려다갓 가오 매무러 굴으 샤티 나드려 무엇술하고
져호느나호니^四 글으 터쥬아내보고 져호느이다^{四三} 예수 1 글으 샤티
보라너의 멋음이 너를 낫게 혼다^四 호니 이에 보는지라 예수를 조차하는
님을 영화^四 호니 뭇사람이 보고 심하느 님을 찬미^四 더라

누가복음 데심구장

예수 1 예리코에 드러가지나 갈때에 혼사람의 일홈은 살^五 카니 세관의
두목으로 부자라 예수를 엊던사람인가 보고 져호되^二 사^三 름이 만하보
지 못홈은 죄가 적음이라^三 예수 1 반드시 일노 말민 암아지나 가리라
흐여 압호로 다르가^四 쟁나무에 올나보고 져호니^四 예수 1 니르러우
러려보고 글으 샤티 살^五 카야 속히느 리라 오늘 내가 네집에 머물겟다^四
니^六 이에 급히느 려깃거 영접^四 허거 늘^七 뭇사람이 그르다^四 허며 글으 터
더었지죄인의 집에 머문다^四 허더라^八 살^五 카셔서 쥬^四 끝으 터쥬야 내잇

는 바절반으로 써 가난을 견지되 만약 뉘것슬 토식 ⁺ 옛스면 스팝을 갑
 겠느이다 ^{+ 1} 호니 ^{+ 2} 예수 ⁺ 굴 ⁺ 샤티 오늘구원이 이집의 팀홍은 그 ^{+ 3} 뜨호
 압라함의 조손임이라 ⁺ 인조가 움은 망호사름 ⁺ 자구원홍이라 ⁺ 뜨호
 라뭇사름이 이 말을 듯고 ○ ^{+ 4} 뜨 예수예루살임에 임의갓가오매 하느
 님의 나라 이곳나타날가 뜻 ⁺ 홀고로 예수 ⁺ 비스를더 ⁺ 홀여 ⁺ 굴 ⁺ 샤
 티 ⁺ 귀호사름이 먼티가 나라 봉홍을 밟고도 라오랴 ⁺ 홀여 ^{+ 5} 열종을 불너
 은 열근을 주며 굴 ⁺ 터 ⁺ 장스 ⁺ 홀여나도 라움을 기드리라 ⁺ 홀매 ^{+ 6} 그 빅성
 이위워 ⁺ 홀여스자 ⁺ 뒤로보내여 ⁺ 굴 ⁺ 터 ⁺ 이사름으로우리제왕노릇코
 져안켓다 ⁺ 홀더니 ^{+ 7} 뜻 ⁺ 홀 ⁺ 촘 ⁺ 귀호사름이 봉홍을 밟고도 라와명 ⁺ 홀여온준
 종들을 불너다가 ⁺ 장스호리가 ⁺ 열마 ⁺ 늄은거 ⁺ 술알고 ⁺ 져 ⁺ 홀니 ^{+ 8} 그 ⁺ 홀나이
 너 ⁺ 려 ⁺ 굴 ⁺ 터 ⁺ 쥬인 ⁺ 님의은호근으로 ⁺ 열근을 ⁺ 늄겠느이다 ⁺ 홀니 ^{+ 9} 쥬인
 이 ⁺ 굴 ⁺ 터 ⁺ 올타선호종이여 ⁺ 저은 ⁺ 터 ⁺ 충성 ⁺ 홀니 ⁺ 열교을 ⁺ 권세를 ⁺ 죠 ⁺ 지 ⁺ 홀라

하고 ^{十八} 그다음이니 러골 ^으 터 쥬인 님의 은호근으로 탓근을 봤겠는
이다 ^{하니} ^{十九} 쥬인이 골 ^으 터 너는 다소 고울을 차지 ^{하라} ^{하고} ^{二十} 또 그다
음이니 ^르 러골 ^으 터 쥬인 님의 은호근이 여고잇느이다 ^{내슈건}으로 써
싸간적 흠은 ^을 쥬인은 인식 혼사름이라 두지 아님 ^터 ^{취하}며 심으지 아
닌 ^터 거둠을 내무셔워 흠이라 ^{하니} ^을 쥬인이 골 ^으 터 악호종아 ^내 ^네 ^임
으로 말미암아 너를 판죄 ^{하리라} 나를 인식 혼사름이라 두지 아님 ^터 ^취
하며 심으지 아님 ^터 거두는 줄을 알진 ^된 ^을 엊지내은으로 써져 ^조에 두
어 내가 온후에 그리 ^서 지병 ^하여 ^{취제} 아니 ^하였느냐 ^{하고} ^을 이에 좌우
를 명 ^하여 ^골 ^으 터은 혼근을 앗느냐 ^{그 열근} 있는 자를 주라 ^하 매 ^을 ^골 ^으
터 쥬인 님 더 열근이 있는 이다 ^{하니} ^을 ^골 ^으 샤 터 내너의 게닐 ^으 노 ^나 무
론 있는자는 주고 업는자는 그 있는 바 ^서 지도 ^호았느니라 ^{하고} ^을 다못
내왕노릇 코져 안던자와 내의 원슈를 쇠 ^으 러다가 내의 암희 ^서 죽이라

흐느니라 ○ 二 예수 1 말을 다 흥고 암흐로 힝 희여 ○ 二 예루살임에 올
 나가 못 촘 감남산에 니르니 뱃배 기와 빼다 냐 가갓 가온지 라두 데즈를
 보내 여콜으 샤티 三+너희 암촌에 가드러갈 때에 져은 나귀 민거슬 맞나
 리니 종리로 본사룸이 업스리라 푸러 쇠운 되 三 만약 사룸이나 귀를 푸
 러 무엇 흐랴 는 나무르면 터답 흐여 콜으 터쥬의 쓸거 시라 흥라 三 보내
 옛던 자 1 가매파연 그 말고 치맛나서 나귀를 풀 때에 三 보 그쥬인 이 콜으
 터 푸러 무엇 흐랴 는 나 흥매 三 콜으 터쥬의 쓸거 시라 흥고 三 이에 쇠을
 고 예수의 계나아와 3 괴웃술나 귀우에 놋코 예수를 터우고 힝 흘 때에
 三+못사룸이 웃스로 써길에 펴더라 三 오래지 아니 흥여 감남산 누릴 곳
 에 셔못 데 3 1 깃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 흠은 본바 능 흠을 위 흠 일
 벼라 三 콜으 터쥬의 일 흠으로 써와 셔왕 흥는 이는 복인 거시 하늘에서
 3 평 흠과 디국 히 늡 혼 터영화 1 라 흥니 3+못사룸 중에 두어 바리석이

이 예수의 글은 터전성님에 드를 척망하고 쇠한 니 터답하고 여겨요. 샤
터내너의 개념은 노니 만약 이사람들이 좀처럼 면돌들이 능히 말하고
라하고 더라 ○ 임의 것 가오메성을 보고 울며 글은 샤터는 이 너의 날에
평안홀일을 관계호줄을 네 알면다 힝이 어니와 이제는 너의 눈의 숨기
리니 ○ 이 날이 너를 러너의 원슈가 도성을 싸아 둘너는 면으로 저희고
너와 너의 조식을 이별하고 돌을 돌우에 셋치지 아님은 너희가 도라
보시는 날을 아지못함이라하고 더라 ○ 이에 성면에 드러가 장사를 쯔
처며 글은 샤터 글에 널너는 내집은 비는 집이니 네가 써강도의 소
절을 삼느나하고 ○ 날마다 성면에 서고 치니제스 장과 선비와 빅
성의 놉흔자가 망하고 기를 도모하고 되다 못 홀바를 엿지 못함은 뭇 빅 성
이다 ○ 움을 써드롬일이라

누가복음에 이십장

몇 총 허로 눈예수 । 성면에 서 빅성을 그르쳐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
 과 선비와 장로 । 나아와 = 닐너 굴으 터 청전된 우리 게무 숨권세로 써
 이를 힝 흐며 너를 이 권세 준자 가된지고 흐라 흐니 ॥ 터 달 흐여 굴으 사
 터 내도 혼녀의 게 혼말을 무를 거시니 내게고 흐라 ॥ 요 안늬의 밥데래
 가 하늘노 말미 암앗느냐 사룸으로 말미 암앗느냐 흐니 ॥ 그 사룸들이
 스스로 히의론 흐여 굴으 터 만약하, 놀노 말미 암앗다 흐면 더 굴으 터 엇
 지 멋지 안느냐 흐고 ॥ 만약 사룸으로 말미 암앗다 흐면 빅성이 반드시
 돌노우리 둘 치리라 흠온 대개 빅성이 요 안늬를 멋어 선지라 흠일 너라
 ॥ 이에 터 담 흐 되아지 못 흐 노라 흐니 ॥ 예수 । 굴으 샤 터 내도 혼무 숨
 권세로 써 이 흐 흠을 너의 게고 치 안켓다 흐고 ॥ 이에 비스로 빅성의
 개굴으 샤 터 혹 이포도 원을 심어 농인의 게세를 주고 다룬짜에 가서 오
 래 잇다가 + 괴약에 멋쳐 농인의 게종을 보내여 동산에 실과를 맛치라

흐매 농인이 쳐공연이 도라가게 흐거늘⁺¹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치고
릉육 흐여 공연이 도라가게 흐거늘⁺² 세 번 치종을 보내니 못 춤내상께
흐여 쫓는지라⁺³ 원쥬 | 굴으 터 엇지 흐리요 내의 스랑 흐는 아돌을 보
내면아마 공경 흐리라⁺⁴ 더니⁺⁵ 농인이 보고 서로의 론 흐여 굴으 터 이
는 장손이니 죽여 산업이 우리게 도라오게 흐자 흐고⁺⁶ 이에 동산 밟고
쫓차죽이니 원쥬 | 엊지 써쳐 치 흐리요⁺⁷ 반드시 와서 이 농인을 망⁺⁸
고 동산을 다른사람의 게붓치리라⁺⁹ 흐니 듯는자 | 굴으 터 이거시일우
지못 흐리이다⁺¹⁰ 흐거늘⁺¹¹ 예수 | 마조 보고 굴으 샤터 굴에 날은 바장인
이 브린바돌 노집모동이요 긴호돌을 문든다 흠운 엇잠이니⁺¹² 므로이
돌우에 뼈러진자는 피⁺¹³ 흐고 이돌이 그 몸에 뼈러진자는 부스러지느니
라⁺¹⁴ 흐니⁺¹⁵ 때 애제스장파 션비 그비 스돌 베프 러조괴들을 그르치는 줄
을 알고 잡고 져⁺¹⁶ 흐되 빅성을 무서워⁺¹⁷ 이에 옛보아 탐지 를 보내여 거조

51
오른사람인데 흐고 그 말의 하^노를 잡아 방벽의 권세에 놓치고 저^하니
— 탐^직이 무^러 굴^으 터^션 성^님 우리 가^션 성^님의 말^호는 바와^그 른^처는
바^가다. 오른^줄을 아^는 거^시 외^모로 써^사 름^을 쬐^치 안^코 오^직 춤^됨 으로
써^하는^님의^도 를^그 른^침 이^니 이^다 —^우 리^가 세^를 치^실 의^개 밋^침 이^함
당^하니^잇 가^하니[—] 예^수 — 그^제 겐^줄을^알 고^골 으^샤 터^운 돈^흡 품^으로
써^내 게^보 이^라 —^이 화^상 과^그 호^가 뉘^냐 —^하니^굴 으^터 치^살 이^니 이^다 —^로
굴^으 샤^티 그^런 즉^지 살^에 물^건 은^지 실^의 개^밧 치^고 하^느 님^의 물^건 은^하
느^님 의^개 드^리 라^하니[—] 탐^직 이^릭 성^의 암^희 서^능 히^그 하^노 를^잡 지^못
하고^또 그^넉 답^을 고^기 히^넉 여^즘 좀^좀 흐^더 라 ○ —^몇 살^두 카^인 의^말 이^다
시^니 는^자 — 업^다 흐^여 나^아 와^무 러^굴 으^터 —^션 성^님 모^셔 가^우 리^를 보^여
스^되 만^약 사^름 이^쳐 권^은 잇^고 조^식 입^시 죽^으 면^등 성^이 그^쳐 를^취 흐^여
조^식 을^나 아^티 를^이 어^주 고[—] 쇠^형 데^일 꼽^사 름^에 장^조 가^쳐 를^취 흐^여

예조식업시죽고 그둘제가취호여또호조식업시죽고 그셋제로
닐곱제서지도또호그러호여다조식업시죽고 그후에녀인이또호죽
엇스니^{三三}다시닐때에이녀인이뉘의처가되리잇가혹은닐곱이다취
홈이라^{三四}예수丨글으샤티이제상사름은시집도가고장가도가되^{三五}
오리더세상파죽음으로다시닐물엇음이맞당호자시집도아니가고
장가도아니가며^{三六}또호죽지도아니호여련스고도호하는님의아
들이되느니이다자나는사름이라^{三七}다못죽은쟈다시닐물의론전된
모쇼형극편에붙겨스퇴쥬를칭호여압라함의하는님이삭의하는님
야곱의하는님이라호햇스니^{三八}이하는님은죽은쟈의하는님이아니
요산쟈의하는님인거시꽃사름이더로말미암아살미라호니^{三九}선비
수인이터답호여꽃으되선성님의말씀이오르나이다호매^{四〇}후에감
히문는자丨업더라○^{四一}예수丨뭇사름의개꽃으샤티사름이엇지카

리스도스를 다빛의 후예라 헌드느냐 시편에 다빛이스스로 말하기를
쥬내의 쥬색닐으 터내의 우편에 안져 내너의 원슈로 써네 말아래 두
기물기 드리라 헌 옛스니 다빛이 더롭 쥬라 칭호 옛 손죽 키리스도스
었지 그후 예가 되라 헌고 ○ 뜻 빅성이 드를 때에 데즈의 계급으 샤 터
션 비를 삼가 헌라 더는 긴 웃님 고든 니 기와 장시에 서문 안파회당에
놈 혼자리와 연석에 슈좌를 도와 헌 나 그려나 파부의 집저물을 삼켜
거 죽길게 비니 그 죄발음이 더 중 헌리라 헌더라

누가복음 데 이십일장

예수 | 눈을 들어 부자 | 레물 노써고 에더 짐을 보다가 도 가 난 혼파
부돈 두 푼 더 짐을 보고 글으 샤 터내 실노너의 계닐으 노니 이 가 난 혼
과부의 더지는 거시뭇사름 보담 더 만 흔은 뭇사름은 그 늄은 바로 써
더지 되이는 족지못 훈터잇는 바를 다더 짐이라 헌더라 ○ 혹이 성던

을 아름다 온돌파례 물노씨 슈리 흄을 말호니^六 예수 | 글으 샤티너의
보는 이 물건이 날이니 르러 혼낫돌을 돌우에 세치지 안코다문어지리
라 호니^七 웃사람아 무러 글으 터션싱 님어느 때에 이거시잇스면이 일
이 응흘때에 무슴정죠잇스리잇가^八 글으 샤티너희삼가를 나우지 말
나 만이 내의 일홈을 무롭쓰고 와글으 터내가 기라호리니 때갓가온지
라^九 너희죽지 말고 죽싸 흠홈파란을 둇고 경동치말나이 일이 반드시
몬져잇스되다 못마도 막은나르지 아니호 옛다호고 ○^十 또 글으 샤티
박성이나 러박성을 터역호며 나라이나 라를 터역호^{十一} 짜이크제진
동호여여 끝에 흥년지고 온역호며 죽무서온것과 큰정죠가하늘노
브터잇스리니^{十二} 이 일전에 사람이 내일홈을 위호여^{十三} 너희를 잡으며
군박호며 회당파옥에 봇치며 씬으 러왕파방벽의 압회나르리니 이거
서 너희 베간종이 되리라^{十四} 고로 너희 모임을 냉호여 엊자씨발명흘고

미리성각지말나 ^내내 너희를 말자조와지혜를 주워 너희 모든 덕 ^호
 는 자 너 능히 결우며 말단답지 못 ^호게 홀지니 ^부모와 형데와 친척파
 벗이 ^너희를 판에 붓쳐 너의 중에 후죽으며 ^도내의 일 흠을 위 ^호여 못
 사 름이 위워 ^호나 그 러 ^호나 ^내내 너희 훈머리털도 양치아닐지니 ^호너희
 촘음으로 써 목숨을 보전 ^호라 ○ ^내내 너희에 루 살 ^함이 군 ^수의 계 둘 님을
 본즉 그 망 ^홈이 갖 가온 줄을 알 ^나 때에 유 ^되에 있는 자 | 산으로 도망
^호며 성에 있는 자 | 나가고 밧회 있는 자 | 드러오지 말 ^나 이는 형벌
^느릴 날이 내 글에 괴록 ^호바 | 다 응 ^호게 ^호리라 ^그 때에 으 히 빙자와
 젓먹이는 자 | 저 화잇 ^숨은 이 땅에 큰 저 앙이 있서 노 ^홈이 이 빅 성의 계
 및 침이니 ^금 칼날에 죽으며 모든 나라에 소로 잡히고 예 루 살 ^함이 외방
 사 름의 계 ^금 힘 ^{이 되}여 외방 사 름의 괴 약이 ^초며 및 출저니 ^내일 월성 신
 이 정조가 있서 따에서 모든 나라 이 곤고 ^호고 바다와 물결의 큰 소리로

찌 상심 허며 三六 사 름 마 다 무 셔 워 낙 담 흠 은 세 상에 반 드 시 니 를 바 일 을
인 흠 이요 하 늘 에 형 제 가 진 동 흠 이라 二七 배에 인 조 능 간 파 콘 영 화로 써
구 름 을 드 고 옴 을 보 리라 二八 이 런 일 이 척 나 자 맛 당 히 몸 을 썩 며 머 리 를
들 둔 너 희 속 훌 날 이 갖 가 옴 이라 二九 허 죠 ○ 二九 이에 비 소로 말 슴 허 시 되 무
화 파 와 모 든 나 무 를 보 고 三一 바 야 흐로 움 이나 면 너 희 스 스로 여 름 이 갖
가 온 줄 을 알 지니 三一 또 흔 이고 흠 을 너 희 분 족 하 는 님 의 나 라 갖 가 온 줄
을 알 나 三 내 실 노 너 희 계 날 으 노 니 이 세 터 가 가지 못 했 어 이 일 이다 일
우 리 라 三三 련 디 가 업 서 져 도 내 말 은 업 서 지지 아니 리라 ○ 三四 스 스로 삼
가 흐 라 너 희 무 옴 에 비 부르 며 휘 흐 며 사는 모 든 넘 려에 눌 녀 그 날 이 금
작 이 三五 너 희 계 림 훌 가 흠 은 함 정 三 흔 온 짜에 거 훈 사 름 의 계 림 흠 이 三六
또 흔 그 러 흐 니 라 다 못 셔 여 늘 비 러 능 히 장 림 의 일 을 피 허고 인 조 의 암
회 서 게 흐 라 흐 죠 ○ 三七 예 수 1 낫 인 즉 성 던 에 서 그 르 치 죠 밤 인 즉 감 남

산에 쉬이니 뭇 빅성이 봄기에 성던에 나아가듯 더라

누룩금 흐는 절이 죽 일 흠은 넘는 절인 되갓 가오니 = 모둔제 소장파 선

비가 예수 죽이 기풀도 모호나다 뭇 빅성을 무서워 흐더라 ○ 떼에 사
탄이 열두 데즈 중에 이 쓰카롯인 유다의 채드러가니 = 제소장파 중군
의 채나아와 예수 엊지풀기풀도 모호 매 ^五 더들이 즐거워은 주기풀작
령 ^六 유다 = 허락 흐고 뭇 사름업는 괴풀을 옛보와 풀야 흐더라 ○

누룩금 흐는 날을 당하니 넘는 절 양 잡는 배라 ^八 예수 = 피들파요 안
니를 보내여 골 ^九 샤더너희가 서 절일연석을 예비 흐여우리로 먹게 흐
라 ^十니 ^{十一} 골 ^{十二} 터어는 곳에 예비 흐리잇가 ^{十三} 골 ^{十四} 샤더성에 드러간 즉
물동의 든 자를 맛나리니 조차 짐에 드러가 ^{十五} 그 쥬인 씨고 흐여 골 ^{十六} 터
션성님이 뭇 기를 내데즈로 더브러님은 절음식 먹을 각방이 어터잇는

나 혼죽 ^{+ =} 더 빅 셜 혼 콘다락 으로 써 너의 깨보 이리니 거고 셔 예비 호라
호 매 ^{+ =} 데 ⁼ 가서 과연 말 혼 바굿 치맛 나 절 일연석 을 예비 호니라 ○
예 수 । 열 두 몸 데 ⁼ 로 혼색 그 때에 자리에 안져 ^{+ =} 굴 ⁼ 샤 터 내심 히 호
고 져 호는 거 손고 상호 기전에 너희와 혼색이 절 일에 먹음이라 ^{+ =} 내 너
희께 널 ⁼ 노니 먹지 안코 하느 님의 나라에서 일우니라 호고 ^{+ =} 이에 잔
을 취호여 축슈호고 굴 ⁼ 샤 터 이 거술가져 너희 각기 논호라 ^{+ =} 내 너희
께 널 ⁼ 노니 다시 포도나무에 나는 바를 마시지 안코 하느 님의 나라 림
호기에 멋겟다 호고 ^{+ =} 뜨썩을 취호여 축슈호고 떼여 주며 굴 ⁼ 샤 터 이
논내의 몸이니 너희를 위호여 준거시니 이를 헹호여 써나를 괴록호라
호고 ^{+ =} 먹은 후에 잔을 취호여 또 혼굿 치호고 굴 ⁼ 샤 터 이는 내의 피신
약의 잔이니 너희를 위호여 흘난거시라 그려나나를 풀쟈의 손이나
와 혼색 상에 잇스니 ^{+ =} 인조는 뎅 혼 바굿 치도라 가 되오 적인조를 푸는

그 사 름 은 저 화 잇 스 리 라 흐 니 二 예 조 一 서 로 무 러 뉘 가 이 를 힝 흠 고 흐
 데 라 ○ 二 또 서 로 큼 이 됨 을 닻 토 니 二 예 수 一 굴 〇 샤 티 외 방 의 군 왕 이
 그 다 소 리 배 원 세 틀 잡 은 쟈 는 운 혜 흐 는 쟈 틀 칭 흐 되 二 오 직 너 희 는 그
 러 치 한 흐 나 타 못 너 희 중 에 큼 이 된 쟈 는 맛 당 히 쳇 은 것 〇 교 웃 름 이 된
 쟈 는 맛 당 히 하 헌 〇 흘 지 니 二 뉘 가 큼 이 되 랴 자 리 에 안 주 쟈 나 二 환 흐
 뉘 쟈 나 차 리 해 안 존 쟈 가 크 지 아 니 나 그 러 나 내 너 희 중 에 〇 환 흐 는 쟈
 〇 흘 나 라 〇 흘 너 희 는 나 를 환 란 중 에 뼈 나 지 아 니 흐 엣 스 니 二 내 나 라 〇
 로 써 너 희 를 봉 흐 기 를 내 의 아 바 니 나 를 봉 흐 심 〇 치 흐 예 二 너 희 로 내
 나 라 자 리 해 음 식 흐 캐 흐 고 또 위에 안 져 이 찰 일 열 두 치 파 물 판 죄 캐 흐
 리 라 〇 흘 쥬 〇 一 굴 〇 샤 티 시 본 시 몬 야 차 탄 이 너 를 삽 을 기 를 밀 〇 치
 흐 캐 쳐 흘 나 二 오 직 나 는 너 를 위 흐 어 비 러 네 멋 음 으로 흐 예 곰 업 서 지
 지 안 캐 흘 여 회 카 흐 후에 너 의 동 성 을 궂 캐 흐 리 라 흘 나 二 피 들 이 굴 〇

터 쥬아내 쥬로 터 브러 옥에 와 죽는 터니 르 키를 등 터 호는 이다 을 터니
골으 쟈 터 피들아 내내 헤脖으 노나 오 늘 톱울기 전에 네 씨 번나 를 아지
못 흔다 을 리라 ○ 을 또 데조의 헤脖으 쟈 터 내내 회를 천 터 와자 를 외친
엄시 보낼 때에 이즈 려 짐이 잇더 나 골으 터 업더 이다 을 을 쟈 터 이제
는 전 터 있는 쟈 가치고 쟈 르 있는 쟈도 을 흔 그려 을 고 업는 쟈는 웃 슬 풍
라 칼을 차 을 내내 회 헤脖으 노나 글에 널은 바사 를 이 죄인 으로 본다
호 말이 맛당 히내 헤옹 흄은 나를 그른 친바 일움이 잇슴이 락 을 흔니 을 대
조 | 골으 터 쥬야 칼 둘이 억디 잇는 이다 을 쟈 터 족 을 흔다 을 흔더라 ○ 을
예수 | 나가 더와 코 치감 남찬에 가매 데조 | 쪘더 라 을 끓고 곳에 내 르 러
데조의 채 을 쟈 터 비 러 유혹에 들면 흔라 을 흔고 을 이에 뼈나 돌 디 치
는 것 만 촘 멀니 을 쥬 러 비 러 을 을 쟈 터 아바니 한 일 출기 시면 이잔으로
찌내 채지나 가게 을 쟈 쇼비 록 그려 나내 의 뜻으로 안 코 오적 아바니 뜻

으로 일우 쇼서 흐니 모 스자 | 하늘 노 브리 나 타 나 건장 매 흐 터 라 모 려
심히 절통 모 여 빌 기를 더욱 군절 이 모 니 쁨 모 이 쿤 피 방울 모 치 땅에 는 려
지 더라 빌고 모 널 어 데조의 채나 아와 그 군심 흡이 심 모 여 창을 보고 모
글 모 샤 터 엇치 자 모 니 날 이나 비 러 미 흑에 들 물 면 모 라 흐 터 라 모 말
흐 모 배에 허다 혼사 룸이 모 니 르고 또 열두 데조에 모 흐나 유 터 가 그 암 희 힝 모
여 예수의 채나 아와 입을 맛 초니 모 예수 | 글 모 샤 터 유 터 야 네 입 맛 촘
으로 써인 모 주를 모 놓니 모 흐니 모 좌우 | 장초 일이 잇 촘을 보고 모 끝 모 터 쥐
야 우 모 리 칼 노 써 치리 잇 가 모 흐는 터 모 그 중에 혼사 룸이 제스 장의 종을 쳐
우 편 귀를 모 짹 그 모 예수 | 날 모 널 모 글 모 샤 터 일 이 이 모 흐니 내 쳐 두 라 모
교 이에 그 귀를 모 모져 곳 치고 모 예수 | 온 바 제스 장파 성면 중군 파장로
의 모 개 말 모 여 글 모 샤 터 너희 와 서 칼과 몽치로 써 강도 잡을 모 치 모 흐 모 냐
모 내 날마다 너희 와 함께 성면에 잇 술적에는 손을 놀니 지 아니 모 흐 엇스

나이제는 너희네니 어두운권세라 ^하_다 ^파_라 ○ ^포 더들이예수를잡아서
을고제스장의집에나온나피늘이멀니죽더라 ^보 뜻사람이원뜰에불
을피우고안졌는터피들이도훈참예 ^하 _나^{五六} 훈계집종이피들의불빛
출향 ^하여안젖슴을보고눈으로조세히보와 ^글_으 ^되 _이 ^도 훈예수를훔
썩혼자 ^라_하 ^나_는 피들이모로는떼 ^하여계집종드려 ^글_으 ^되 _내 _아 _지
못혼다 ^하_더 ^라_포 이윽고또훈사름이보고글 ^으 ^되 너도그무리라 ^하 _니
파들이 ^물_으 ^되 사름아아니라 ^하_더 ^라_포 편시에도훈사름이힘써말 ^하
여글 ^으 ^되 이사름이실노 ^훔_썩 혼거시이가 ^나_니 ^사_름이라 ^하_나^추 피들
이 ^걸_으 ^되 사름아네말 ^하는바를내아지못 ^하노라 ^하는터 ^곳_들이울더
라 ^추 쥬 ¹ 피들을도라보니피들이쥬의말이오늘물을기전에세번나
풀모르리라 ^하 흠을성각하고 ^하_나^{五六} 이에맞고나가동곡 ^하_다 ^라 ○ ^포 예수를
직회는자 ^라_하 ^여 치며 ^{六四} 그룬을구리이고그낫술치며무역 ^글_으

터너를 치는자 | 뉘나 말호라 호며 六五 또여 러 七 쟇 八 으로 써 욕 九 더라 | 六六
 아 촘에 빅 성의 장로 와 제 六五 장파 선비다 모여 예수를 쇠을 고 공회에니
 크러 골 一 으 터 六五 네 가 만일 케리스도스 면 배우리 채고 호라 호니 골 一 샤
 터내너희 채고 호 二 면 너희 멋지 안 코 三 너희 채무르 면 너희 터답지 안 코
 도나를 놋치 아니리라 六九 다 못이 후에 인 四 조가 능호 신하는 님의 편에 안
 즈리라 호니 五 다 골 一 으 터 그 런즉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골 一 샤 터너
 희 말호 옛다 내로 다호니 六 뭇사 름이 골 一 으 터 엊지다 운간증을 쓰랴 그
 말호는 바를우리 드렸다 호더라

누가복음에 이십삼장

웃사 름이니 러예 수를 쇠을 고 피나토의 암 六五 키티니 六六 러 一 송 二 손 三 호여 골 一
 터우리이사 름을 보니 이 빅 성을 미혹케 호 四 며 五 지 六 살의 케 七 밧 八 치는세를 금
 흐고 스 九 스로왕이라 키리 쓰도 | 라호니 一 이다호니 二 피나토 | 무러 골

○ 터네가 유덕인의 옳이냐 헤매되 담호여 굴 ○ 샤터대인 이 말호 옛느
 이다호니 ○ 피나토 । 제스 장과 빅성의 개굴 ○ 터내이 사람의 무손험
 을보지못호 옛다호니 ○ 웃사람이 더욱 힘써 굴 ○ 터더 빅성을 소동제
 헤며 그르침을 온갖 터에 전호여 가나부로 브티여 거너루 렘느 이다호
 매 ○ 피나토 । 한번 둇고 무로 터이 가나부사람이냐하고 ○ 그 해롯의
 권세에 브든 줄을 알고 해롯의 계보 내내에 해롯이 예루살임에 있는
 지라 ○ ○ 예수를 보고 심히 즐거움은 듯고 오래 보고 저호며 그 아모정
 죠 헝호는 것보 기를 브랄일너라 ○ 고로 여려 말노 써부르 되예수 । 터
 답호는 바 । 업스니 ○ 모든 제스 장과 선비 서서 힘써 송스호니 ○ 해롯
 파노군수들이 멀시호여 회룡호여 선명흔의 복으로 뼈님히고 도도피
 나토의 개보내니 ○ 피나토는 해롯으로 데브러본리원숙로 당일에 써
 로 벗호지라 ○ ○ ○ 피나토 । 모든 제스 장과 빅성의 관장을 모이라하고

그 으 터 너 희 이 사 름 으 써 내 게 쇠 으 러 다 가 그 빅 성 을 미 흑 켜 혔 다
하 니 내 곳 너 희 송 스 흥 는 바 로 써 너 의 암 희 셔 사 실 흥 옛 스 터 그 험 을 보
지 못 흥 옛 다 흥 고 해 롯 이 쪽 혔 그 러 흥 여 도로 보 내 옛 스 니 더 죽 을 터
당 흥 을 힝 치 안 낸 지 라 고 고로 내 쪽 려 노 으 리 라 흥 니 대 개 절 괴 롤 당
흐 매 방 뱙 이 반 드 시 혼 죄 인 을 놋 는 지 라 웃 사 름 이 일 제 히 불 너 글 으
터 이 사 름 을 브 리 고 바 라 바 를 노 와 우 리 를 주 쇼 셔 흥 니 바 라 바 는 성
중 에 셔 란 을 지 어 사 름 을 죽 이 고 옥 에 갓 친 자 라 피 나 도 예 수 를
노 코 쟈 흥 여 다 시 웃 사 름 을 권 흥 되 다 못 사 름 이 불 너 글 으 터 십 즈 들
에 못 질 흥 쇼 셔 십 즈 를 에 못 질 흥 쇼 흥 니 피 나 도 세 번 말 흥 여 글
으 터 대 무 어 술 흥 며 무 숨 악 을 힝 흥 옛 는 냐 내 그 죽 을 죄 를 보 지 못 흥 옛
다 흥 고 쪽 셔 려 놋 켜 다 흥 니 웃 사 름 이 콘 소 리 로 고 절 이 구 흥 기 를 심
즈 를 에 못 질 흥 라 흥 니 웃 사 름 의 소 리 승 흥 옛 는 지 라 이 에 피 나 도

그 구 흥 는 바 굽 치 명 죄 흥 고 란 을 지 어 살 인 흥 고 二 素 에 갓 친 자 를 노 二
나 이 는 뭇 사 름 의 구 흥 는 바 요 예 수 로 써 뭇 사 름 의 뜻 에 붓 치 니 ○ 二 六 뭇
사 름 이 쇠 올 고 갈 때 에 쿠 리 니 사 름 시 몬 이 밧 흥 로 브 터 오 니 뭇 사 름 이
잡 아 십 조 틀 을 흥 여 곰 지 위 二 七 예 수 를 조 치 니 수 다 혼 빅 성 이 쪽 고 쪽 여
러 부 인 이 가 숨 을 치 며 통 곡 흥 거 늘 二 七 예 수 一 도 라 보 와 굴 一 샤 터 예 를
살 일 의 녀 인 아 나 를 위 흥 여 우 지 말 고 오 직 조 괴 와 조 식 을 위 흥 여 우 러
라 二 九 날 이 니 르 러 사 름 이 반 드 시 말 흥 되 一 희 비 지 못 흥 며 一 희 낫 차 못
흐 며 젓 먹 이 지 못 혼 부 인 이 복 이 라 흥 고 三 一 그 때 에 사 름 이 산 드 려 굴 一
터 우 려 를 누 르 라 흥 며 둔 드 려 굴 一 터 우 려 를 그 리 우 라 흥 고 三 二 푸 른
나 무 에 도 오 히 려 이 굽 치 흥 흥 거 든 마 른 나 무 를 엊 지 흥 랴 흥 더 라 ○ 三 三
도 두 죄 인 을 쇠 올 고 예 수 로 더 브 러 흠 죽 이 려 흥 더 라 ○ 三 三 혼 곳 에
르 니 일 흠 온 두 골 잇 는 곳 이 라 십 조 틀 을 못 질 흥 고 도 두 죄 인 을 흥 나 은

유편에 흐고 흐나은 좌편에 흐더라 〔四〕 예수 | 굴으샤 터아바니아사롭
 들을 샤흐 쇼셔 그 훌바를 아지못 흐느이다 흐더라이에 사름이 제비 쁨
 아 그 웃슬 논흐니 〔三五〕 빅성은 서서 보고 관장은 비우셔 굴으터더다만사
 름을 구원 흐옛스니 만약하는 님의 키리쓰도요 쎈바쟈 | 면스스로 구
 원흐라 흐고 〔三六〕 군수들이 또 흔희 롱흐여나아와초를 가져다주며 〔三七〕 굴
 은 터네가 만약 유터인의 왕이면 스스로 구원 흐라 흐고 〔三八〕 그 우에 희리
 니와로 마와 희빅리 말노방을 써글으터이 눈유터인의 왕이라 흐옛더
 라 ○ 〔三九〕 흠색 못걸 흔죄인에 흐나이 괴롱 흐여글으터네 키리쓰도 아니
 냐 가히 저괴와 우리를 구원 흐라 흐니 〔四十〕 오직 그 흐나이 터답 흐여 척망
 흐여글으터네 흠색 형벌을 밟으며 오히려하는 님을 두려워 안느느냐 〔四一〕
 우리 는 맛당이 밧을 바요 흥흔바에 싸되 오직 이사름은 흥흔바가 올치
 안님이 업다 흐고 〔四二〕 이에 예수 콜으터 쥬 | 나라에 나아갈때에 나를

성각호쇼서호니 을예수 | 굴으샤되내실노너의제말호노니오늘네
반드시나와함썩즐거온싸애잇스리라호더라 ○ 그때가오시중에
온싸이어두워미시말에니르러 포날이금음호며성던포장이절반이
찌여지나 포예수 | 큰소리로불너굴으샤되아바니내령혼을아바니
손에부탁호는이다말을다호고기운이센어지니라 포파총이그일을
보고하느님을영화호여글으덕이실노울흔사람이라호고 포모여구
경호던뭇사람이이일을보고다가슴을치며도라가고 포그아는쟈와
밋가나늬로브터함썩좆던부인은멀니서서보더라 ○ 포호사람의일
홈은요셜이니저샹이라사람됨이어질고도울흔지라 포유덕의아리
마티고을에브터스되더의도모호며지은바일에참네치안코본리하
느님의나라를소모호던쟈 | 라 포이사람이피나토의제나아가예수
의시신을구호여 포취호여느리워가는뵈로써싸고돌에판무덤에두

니 종 러 장 소 혼 사 름 업 손 곳 일 너 라 ^{五 四} 때 는 절 고 률 예 비 흐 는 날 이 니 사
밧 일 이 거 의 갓 가 온 지 라 ^{五 五} 가 니 니 로 브 터 예 수 와 흠 씩 온 모 든 부 인 이
뒤 를 조 차 그 무 덤 파 엇 더 케 시 신 둠 을 보 고 ^{五 六} 이 에 도 라 가 향 료 와 몰 약
을 예 비 흐 옛 소 터 사 밧 일 을 당 흐 여 경 계 의 명 을 조 차 쉬 이 더 라

누 가 복 음 데 이 십 소 장

사 밧 일 첫 날 봉 기 에 부 인 들 이 갓 촌 바 향 료 를 가 지 고 무 덤 에 니 른 러 ^二
무 덤 의 돌 이 굴 너 노 옛 숨 을 보 고 ^三 드 러 가 쥬 예 수 의 시 신 을 보 지 못 흐
매 ^四 못 촘 위 흐 여 쥬 져 홀 빼 에 두 사 름 이 빙 는 의 복 을 님 고 것 희 셋 소 니
^五 부 인 들 이 놀 내 여 짜 에 업 터 니 두 사 름 이 굴 으 터 엇 지 산 쟈 를 죽 은 쟈
에 가 온 터 셔 촛 ^六 누 냐 ^六 더 여 괴 잇 지 안 코 다 시 니 러 소 니 더 가 니 니 에 잇
슬 때 에 너 의 계 날 은 말 이 ^七 인 조 一 반 드 시 죄 인 의 손 에 가 십 조 를 에 못
질 흐 옛 다 가 데 삼 일 만 에 다 시 날 겟 다 흠 을 성 각 흐 라 흐 니 ^八 부 인 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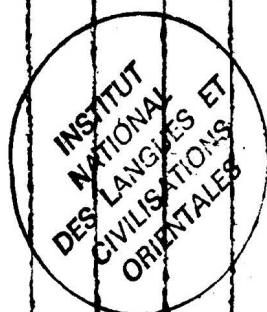
이에 그 말을 성각하고 무덤으로 브터도라가 다이일노씨 열호데즈와
모든데즈의 케고호니몸데즈의 케고호는자는 이⁺ 막다닌의 마리⁺
암파요안부와 야곱의 어맘마리암파훔씨^九 혼바다룬부인이잇더라⁺
그말노씨다하탄홈을삼아잇지아니호되⁺ 다못피들이나러나무덤
에다르가굽어보매오직가는뵈둔것만보고일운바를괴괴히넉여도
라오니라 ○^{+三} 그날에 두데즈 | 혼마을에가니일홈은입맞시니예루
살임에셔이집오리타^{+四} 서로맞난바 모든일을말호여슈작홀째에^{+五}
예수 | 갖가이와셔훔씨횡호되^{+六} 두데즈 | 눈이아득호여아지못호
니⁺ 예수 | 골으샤더너의횡호며서로무숨일을말호느냐호니^{+八} 데
가서서서슈식호더니그호나일홈은키료파니더답호여골으더네예루
살임에나그네되어홀노이저음잇는바일을아지못호느냐호니^{+九} 골
으샤더무숨일이뇨골으더나살잇예수의일아니곳션자되여하느님

파문 빅성의 암희서 말파횡스에 능 흠이 있다 흥여 二+우리모돈제스장
파관장이 붓쳐죄를 당 흥여 십조를 에 못질 흥여 옛스터 二-오직우리는 더
가이 살일 속 흥기률 브라 엿더니 이 쟁아니라 이 제일을 일운제 삼일인
터 二-우리 중에 두어부인이 우리를 놀남게 흠은 더들이 아 춤에 무덤에
가 二-그 시신을 보지 못 흥고 와서 고 흥되련스가 현성 흥여 그 살았다 말
흥을 보고 二-우리 중에 두어사람이 무덤에 가서 파연부인의 말 혼바로
치 오직예수를 보지 못 흠이라 흥니 二-표에 수 一 골으샤 터 미련 혼자야 너
의 二-목숨에 선지의 말 혼바를 더 터미는다 二-6 키리쓰 도 가 맛당이 이 二-7 치
고 二-상 흥고 그영화에 나아 가지 아니 랴 흥고 二-7 이에 모 쇼로 브터비 롯 흥
여 모 돈션지의 二-게밋쳐 二-므로글에 二-7 괴 二-7 친일을 다 2-7 세히 강론 흥고
2-8 갈바마운이 2-갓가오매예수 1-7 서로 흥코져 흥는 것 2-7 치 흥니 2-7 두데
2-1-7 근청 흥여 2-7 글 2-7 터 2-7 우리로 더 브러 흠띠류 흥라 흠은 때 절무 러 날이

기울미라이에드러가홈썩류흘서^{三+}더브러자리에안준후에썩을가
져축슈하고떼여주니^{三-}두데즈의눈이곳열너밋알겟시매예수-문
득보이지안는지라^{三-}두데즈-서로글으터길에서우리로더브러말
흐여성경을허리흘때에우리모음이엇지싸자아니^하옛느뇨^하고^{三-}
즉시니러예루살임에도라가열흔데즈와홈썩흐는사람모인^하를맞
나니^三쥬-1과연다시니러시몬의게낫라남을말^하거늘^三두데즈-1
또호길에셔맛난바와잇지썩을젤적에예수호일을교^하더라○^三말
흘때에예수-1스스로그가온터서서글으샤^하너희편안^하라^하니^三
뭇사람이경동하고무서워^하야령흔을본가뜻^하니^三예수-1글으샤
티너의엇지황망하고^하모음에의심^하느나^三내손과발을보라^하이내로
다나를문제보라령흔은뼈와고기가업서도너희보라나는잇따^하며
부아를말^하교슈족으로써보이니^{三-}매즈-1줄거움을위^하여밋지안

코 뜨고 괴히 넉 일 때에 예수 1 글으 샤 되 너희 여괴 먹을 거시잇느냐 하
니 2 이에 구은 물고 기훈 편과 밀방 혼덩이를 주매 3 예수 1 가져 그 암
희서 먹고 ○ 4 글으 샤 되 내가 본리 너희로 혼색 5 여 너희께 말 혼바 모
쇼의 률 법과 선지의 글과 맛 시편에 괴록 혼바나를 6 른 친거시다 맛당
이이 7 률 웅 혐 흠이라 8 고 9 이에 그 총명을 열어 모든 성경을 섞 닻게 10
고 11 도 글으 샤 되 글에 이 12 치 말 13 혼 옛 소니 14 기리 쓰도 가 이 15 치고 16 상 17
엿다가 데 삼일만에 죽음으로 브터 다시 너 18 러 19 그 일 흠을 부탁 20 혼여 너희
21 기와 죄사 22 혼도를 만국에 전홀식 예루살임으로 브터 비롯 23 혼겟 소니
24 너희는 이 일에 간증되리라 25 내 26 장 27 짖아 밤의 혀 락 혼바로 써너의 28
보내니 29 다 못 성에 거 30 혼여 능 흠이 우으로 브터 너희 중을 기드리라 31 혼고
○ 32 이에 인도 33 혼여 빙다니 34 에니 35 르 손을 드러 36 츄 슈 37 혼더 라 38 츄 슈 혼
때에 웃사름을 접 39 혼여 쪘나 40 하늘 노을 나가니 41 웃사름이 절 42 혼고 심히

줄거워 예루살임에 도라가 늘 성전에 서 하느님을 송양호더라 아멘



누가복음종

